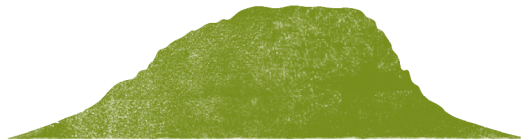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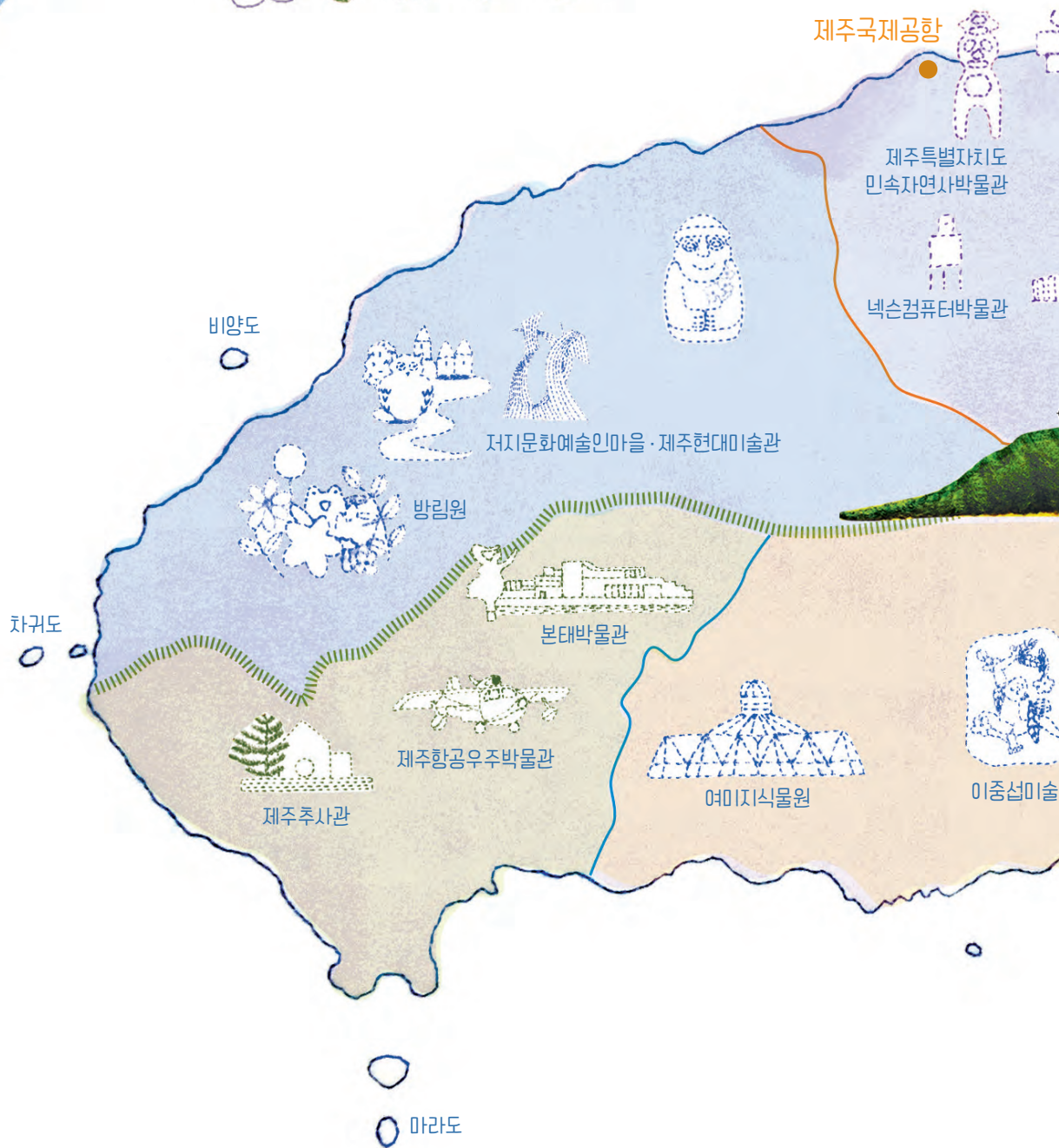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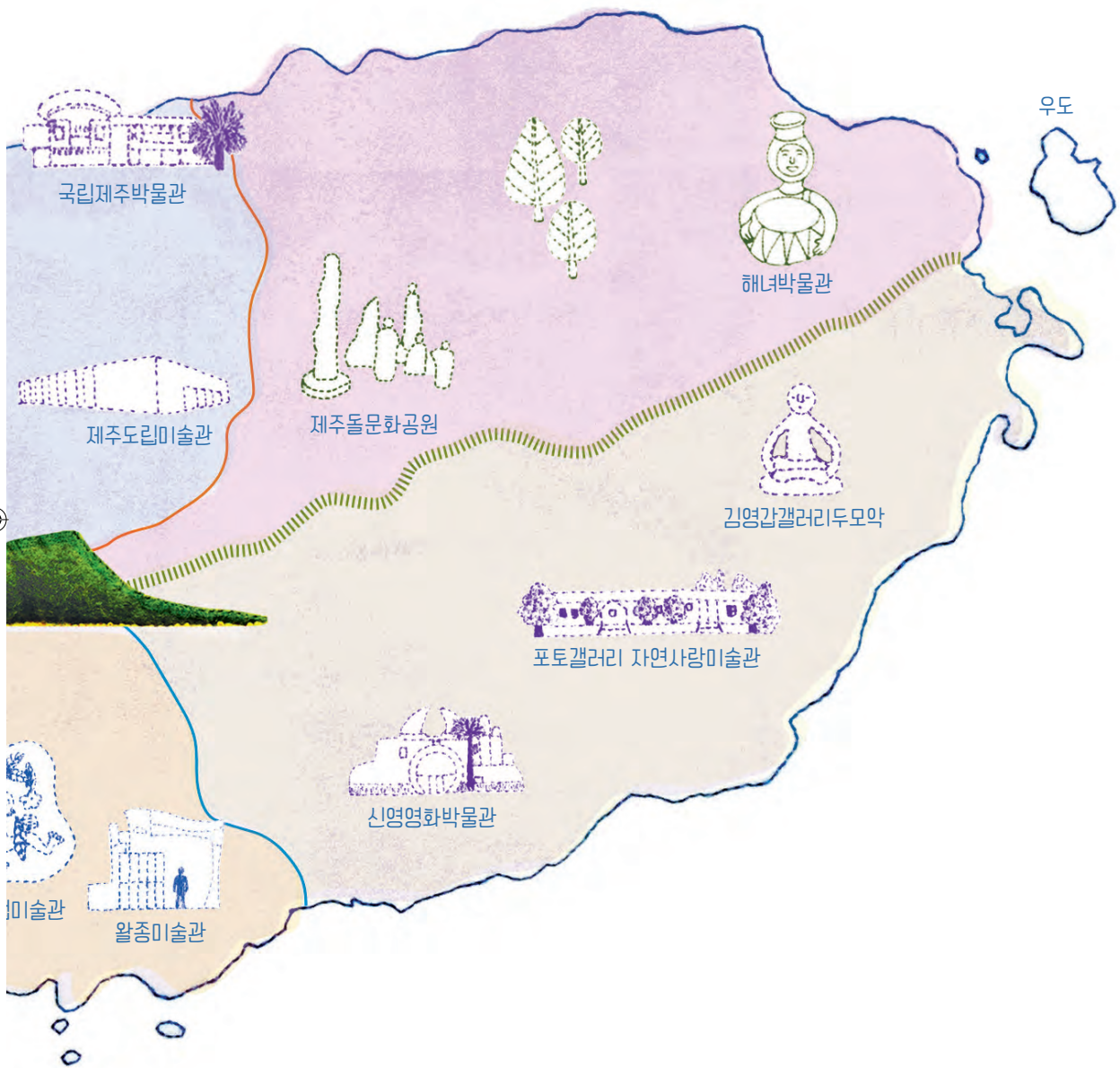
제주  
는  
아  
름  
답  
다

Beautiful  
Jeju Island



# JEJU





일러스트레이션 Regina

## 책을 펴내며

아득한 바다에서 솟아오른 제주도. 올레길에 서서 수런거리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이 많아 '3다도'라 불리던 제주는 이제 '4다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침묵에 잠긴 바다까지 수런거리게 할 만큼 '관광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걸까요?

언제나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한라산  
365일 태평양의 맑은 공기를 끌어당기는 서귀포 푸른 바다  
누이의 봉긋한 가슴처럼 솟아오른 수많은 오름과 산봉우리  
마주 오는 얼굴 위에 미소를 머물게 하는 정겨운 올레길



이 외에도 80여 개의 문화 관련 시설들이 우리의 오감을 충만하게 해 줍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을 소개합니다.  
좀 더 멋진 사진과 좀 더 친절한 정보와 좀 더 맛깔스런 애깃거리를 모았습니다.  
코발트빛 바다와 송송 구멍 난 까만 바위와 샛노란 유채꽃의 절묘한 대비처럼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제주의 고운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 Prologue

In Jeju-do that seems to have slowly risen from the far-off sea, people are fascinated by the waves surging while standing on the Olle trail.

Jeju-do, renowned for its three abundant elements - wind, women, and rocks, is now flooded with tourists, awakening the long quiet of the ocean.

Then, why are more and more people fascinated with Jeju?

The reasons might be:

The Halla Mountain filled with mysterious charms

The blue ocean in Seogwipo surrounded by fresh air all year round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 with numerous volcanic cones and mountain peaks (selected as one of the New 7 Wonders of Nature)

Olle roads that present oncoming people with friendly and warm smiles.

Furthermore, about 80 cultural facilities help visitors fully gratify their senses.

In this book a variety of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are introduced in a recognizable manner and illustrated with vivid photographs and detailed information.

Everyone who reads this book will feel the beauty only found in Jeju awed by the exquisite harmony of color contrasts among its cobalt blue ocean, inky volcanic stones, and bright yellow rape flowers.

June, 2015

# 제주는 아름답다

## 차례



책을 펴내며	4
--------	---

### 제주시 시내권

국립제주박물관	12
제주도립미술관	1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4
• 탐라국 입춘굿이 열리는 제주목 관아	2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30
제주 4·3 평화기념관	34
제주대학교 박물관	38
제주교육박물관	42
아라리오뮤지엄	46
넥슨컴퓨터박물관	52
제주러브랜드	56
제주아이스뮤지엄 + 3D 착시뮤지엄	58
성안미술관	60



## 제주시 서부권

## 제주시 동부권

• 제주현대미술관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64	제주돌문화공원	98
제주현대미술관	66	해녀박물관	104
• 물방울을 담은 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70	다회연티뮤지엄	108
방림원	72	에코랜드	110
생각하는정원	76	메이즈뮤지엄	112
제주 유리의성·마법의숲	80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114
한림공원	82	제주미니랜드	116
그리스신화박물관	84	한울랜드	118
제주공룡랜드	86		
나비공원 프시케월드	88		
테디베어사파리 테지움	90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92		
• 제주도의 식물원 이야기	94		



# 제주는 아름답다

차례



## 서귀포시 시내권

이중섭미술관	122
• 이중섭과 서귀포	124
왓종미술관	126
제주특별자치도립 기당미술관	130
여미지식물원	134
소암기념관	138
제주테디베어뮤지엄	140
감굴박물관	142
박물관은 살아있다	144
믿거나말거나박물관 제주	146
세계조가비박물관	148
아프리카박물관	150
조안베어뮤지엄	152
석부작박물관	154
SOS박물관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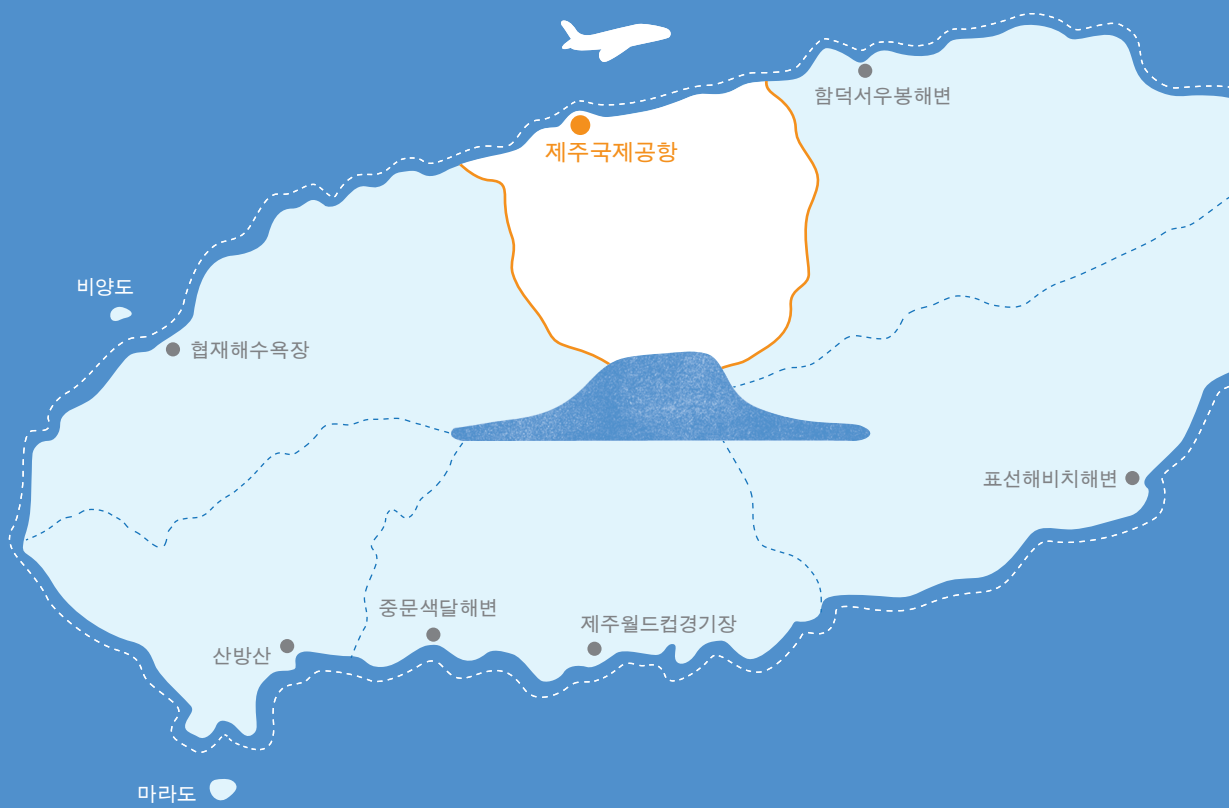


## 서귀포시 서부권

## 서귀포시 동부권

제주추사관	160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196
• 추사, 19세기를 이해하는 키워드	164	• 김영갑, 지독한 제주 사랑	200
본태박물관	166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202
오설록티뮤지엄	170	신영영화박물관	204
카멜리아힐	176	일출랜드	208
제주유리박물관	178	제주민속촌	210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180	제주해양과학관	212
제주항공우주박물관	182	트릭아트뮤지엄	214
건강과 성 박물관	186	휴애리자연생활공원	216
소인국테마파크	188	제주허브동산	218
초콜릿박물관	190	비엘바이크박물관	220
제주조각공원	192		
		• 제주의 대표적 축제	222





# 제주시 시내권



- 1 국립제주박물관
- 2 제주도립미술관
- 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 5 제주4·3평화기념관
- 6 제주대학교 박물관
- 7 제주교육박물관
- 8 제주국제공항
- 9 넥슨컴퓨터박물관
- 10 제주러브랜드
- 11 제주아이스뮤지엄+3D착시뮤지엄
- 12 성안미술관
- 아라리오뮤지엄



## 1 국립제주박물관

JEJU NATIONAL MUSEUM  
國立濟州博物館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보존, 전시, 교육과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제주의 대표적 문화공간이다. 건물 지붕은 제주의 초가집과 오름, 돌담 등에서 보이는 곡선을 표현하였으며, 담장과 창문은 바람이 많은 기후적인 특징을 담아냈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상설전시실 6개, 강당, 체험관 ‘어린이올레’,





야외전시장 등이 있다. 상설전시실은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근·현대까지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시대적으로 정리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며, 보물 제652-6호인 『탐라순력도』와 장한철의 『표해록』 등 시·도 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8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풍랑을 만나 바다에 포류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데 하멜의 『표류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녀들이 사용하던 물옷과 도구, 제주의 말 문화와 관련된 기록은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온 제주 사람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대표작으로는 덧무늬토기, 금동허리띠 꾸미개, 제주목사 이익태(1633~1704)의 탐라에 대한 기록인 『지영록』 등이 있다.







## 덧무늬토기

덧무늬토기는 약 8,000년 전부터 신석기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토기로 표면에 흙띠를 붙여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었는데, 강원도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제주 지역의 덧무늬토기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흙띠를 평행선 혹은 기하학적 모양으로 붙이거나 콩알 모양으로 점점이 붙여 장식했다.

제주 고산리유적에서 발견된 이 덧무늬토기는 세 줄의 두꺼운 흙띠를 단순하면서도 율동감 있게 연속적으로 장식했다.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와 흡사하여 후빙기 제주가 섬으로 완전히 분리된 이후, 제주의 신석기인들은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주는 토기다.







**개관연도** 2001년  
**대표전화** 064-720-8000  
**웹사이트** <http://jeju.museum.go.kr>  
**개관시간** 화~금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09:00~19:00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3월~10월 매주 토요일  
 21:00까지 연장 개관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 2 제주도립미술관

JEJU MUSEUM OF ART

濟州道立美術館



한라산의 넉넉한 품안에 안겨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은 자연과 건축물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제주의 대표적 미술관이다. 건축물 그대로가 자연이며 예술작품인 미술관 정면 좌우에 큰 연못이 있어 주변의 산과 하늘을 물결 속에 담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옥외정원에는 한라산과 백록담 모형의 야외무대가 있어 미니콘서트, 록페스티벌, 민요한마당,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장리석기념관, 시민갤러리, 옥외전시장 등이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동시대 현대미술 기획전을 연 4회 개최하며, 상설전시실에서는 제주미술사 정립을 위해 지역 작가 전시 및 소장품 전시를 하고 있다. 장리석기념관에서는 장리석 화백의 기증 작품을 상설 교체 전시하며, 시민갤러리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 위주로 하고 있다. 옥외전시장은 조각작품 상설전시와 백일장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1 문봉선, 전방하폭
- 2 송현숙, 2획
- 3 강요배, 문주란



##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연도	2009년
대표전화	064-710-4300
웹사이트	<a href="http://jmoa.jeu.go.kr">http://jmoa.jeu.go.kr</a>
개관시간	09:00~18:00, 하절기(7~9월) 09:00~20:00
휴관일	매주 <b>월요일</b> ,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로 2894-78







### 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濟州特別自治道 民俗自然史博物館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의 민속 유물과 자연사 자원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관리, 보존, 상설전시를 하고 있으며, 조사와 연구를 통해 특별전시, 사회교육, 학술교류 등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 고유의 민속과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전승함으로써 도민들은 전통문화를 통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갖게 되며, 관광객들은 제주의 독특한



향토문화를 느낄 수 있다.

연간 10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상설전시관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인 화산과 지질,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제주인의 일생, 의식주, 생산 산업 그리고 특별기획실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에는 대형 용암석과 돌하르방을 비롯하여 돌을 이용한 생활용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 1 성장
- 2 테우
- 3 해안습지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개관연도	1984년
대표전화	064-710-7708
웹사이트	<a href="http://museum.jeju.go.kr">http://museum.jeju.go.kr</a>
개관시간	08:30~18:00
휴관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훈증기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 탐라국 입춘굿이 열리는 제주목 관아

제주에서는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탐라국 입춘굿’ 축제가 열린다. 제주목(濟州牧) 관아(官衙) 망경루 앞마당에서 열리는 이 입춘굿은 탐라국 시대부터 입춘에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가족과 이웃의 무사안녕을 비는 제주의 전통행사다. 조선시대 제주목사가 제주 지역의 각 고을을 순회하는 장면을 기록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 제주목 관아에서 벌이던 입춘굿 장면이 나온다.

제주시 삼도동 한복판, 건물 사이에 섞여 있어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곳에 이 제주목 관아가 있다. 관아는 제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제주 7대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적 배경 사이에 묻혀 있지만 대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면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 제주의 옛 모습을 만나게 된다.

제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제주 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다. 관아는 지금의 관덕정(觀德亭)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분포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무참히 훼손된 후 2002년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세상에 다시 얼굴을 비추게 되었다.

입구의 관덕정을 지나 홍화각(弘化閣)과 굴림당(橘林堂), 연희각(延曦閣) 너머 맨 안쪽으로 가면 망경루가 나타난다. 망경루는 과거 한양을 바라보며 왕의 은덕을 기리던 곳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관아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망경루 앞에는 투호를 비롯한 민속놀이기구와 곤장이 있어 재미있는 추억거리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관아 곳곳에는 밀랍으로 만든 인형을 전시해 당시 제주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관덕정 내부 벽면에는 십장생도와 적벽대첩도, 상산사호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 볼거리를 더한다.



탐라국의 개국신화가 전해져 오는 삼성혈(三姓穴)은 제주 KAL호텔과 제주특별자치도민 속자연사박물관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입구를 지나 처음 만나는 전시문을 들어서면 공원처럼 수목이 우거져 고즈넉함이 느껴진다. 전시실에는 삼성혈의 신화에 대한 모형도와 고문서, 제기, 현판 등이 보관되어 있고 영상실에서는 탐라국의 신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다. 다시 숲길을 걷다 보면 태고 시대에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 3신이 태어난 세 웅덩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전통문화는 선조들의 땀과 지혜가 집적되어 있는 우리 얼과 혼의 보고이자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다. 그리고 거대한 뿌리로 품격 있는 우리 삶을 위한 자양분을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 역사의 뿌리가 없으면 진정성도 없고 진실 없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전통이 없으면 지붕 위의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위태롭다.”

서용순 수필가



## 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JEJU WOMEN'S HISTORY&CULTURE EXHIBITION HALL  
济州女性历史展览馆简介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세 개의 테마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관(신화관) ‘여신, 제주를 창조하다’에서는 제주를 창조한 설문대할망과 사랑의 여신이며 농경신인 자청비 그리고 탐라국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벽랑국 세 공주를 통해 탐라국이 수렵시대에서 농경시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 신화 속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2전시관(역사관) ‘제주 여성, 변방에서 빛나다’에서는 조선시대의 여성 군인 제주 예청, 제주 해녀, 200년 동안 제주 여성을 육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였던 출륙금지령에 대한 패널과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여성 인물로 조선 성종대의 내의원 의녀인 장덕과 귀금,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하여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나눔을 실천한 거상 김만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3전시관(생활관) ‘제주 여성, 경계를 넘어’에서는 제주의 풍광과 제주 여성이 일하는 모습 등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온 모습을 사진, 영상, 육성녹음 등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제주도라는 지리적 환경과 풍토에서 발생한 제주만의 독특한



민속인 육아풍속, 물건기, 밭일, 바다일, 목축, 탕건·망건 짜기 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삶을 기록하고 전통의 맥을 전승해 온 다양한 장인들의 모습을 영상과 소리 듣기로 전시하고 있는데, 스크린 모니터에는 해녀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제주농요, 진사데소리를 감상하며 힘든 노동현장의 괴로움을 노래로 승화시킨 애환을 체감할 수 있다.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개관연도	2010년
대표전화	064-710-4242~4246
웹사이트	<a href="http://swcenter.jeju.go.kr">http://swcenter.jeju.go.kr</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8길 12







## 5 제주4·3평화기념관

JEJU 4·3 PEACE MEMORIAL HALL

濟州4·3平和紀念館



제주4·3평화기념관은 제주시내 동쪽 봉개동 거친 오름 기슭에 있는 제주4·3평화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역사를 담은 그릇 형태로 디자인된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연출된 전시 구성은 제주4·3사건 이전의 시대 상황부터 제주4·3사건 이후 진상규명운동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 주는 자연스러운 역사 교육의 장이다. 제주4·3사건 당시 민간인들이 피신처로 활용한 천연동굴을 모티브로 한 전시관 입구는 오랫동안 묻혀 있던 역사적 진실을 찾아 가는 여정을 느낄 수 있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박재동의 ‘3·1절 기념대회 발포사건’, 정용성의 ‘미명’, 문경원의 ‘레드 아일랜드’, 주재형의 ‘4·3의 새벽’, 오석훈의 ‘제주 저항의 역사’, 김창겸의 ‘한라산의 평화’, 강요배의 ‘제주도민의 5·10’, 이가경의 ‘불타는 섬’,





고길천의 ‘죽음의 섬’, 박불똥의 ‘행방불명’ 등 다양한 작가들의 독특한 기법을 활용한 전시작품이 있다. 이를 통해 제주 4·3사건을 다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특히 1948년 11명의 민간인이 토벌대에 의해 질식사한 동굴 현장을 발굴 당시 그대로 재현한 다량쉬 특별전시관은 당시 긴박했던 피난생활과 학살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외부는 제주 4·3사건을 기리는 조형물과 추모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적인 휴식공간 기능도 겸하고 있다.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어울림을 표현하고 있는 중앙의 위령탑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신위 1만 4천여기가 봉안되어 있는 위패봉안소는 희생자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념의 공간이다.

공원 곳곳에 있는 조형물 중 ‘모녀상’은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토벌대의 총탄에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보는 이들을 슬프게 한다. 또한 ‘귀천’이라는 상징 조형물은 제주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무하고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 제주 4·3 평화기념관

개관연도	2008년
대표전화	064-710-8461
웹사이트	<a href="http://www.jeu43peace.or.kr">www.jeu43peace.or.kr</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매월 첫째, 셋째 <b>월요일</b>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1 위령탑
- 2 비설
- 3 위패봉안소





## 6 제주대학교 박물관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濟州大學校博物館



48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 주는 생활사 유물과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매장문화재 유물 등 45,000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내왓당 무신도(국가중요민속자료 제240호), 남방에(도지정 민속자료 제5호), 돌하르방(도지정 민속자료 제2호, 4기), 테우 등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유물로 상설 전시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시청각실, 야외 테라스 등이 있고, 건물 밖에 유물전시장이 조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은 ‘제주의 바다실’, ‘제주의 땅실’, ‘제주의 사람실’, ‘제주의 옛문서실’, ‘대학 역사실’ 등이 있어, 제주 사람들의 어업활동과 해녀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생활도구와 농기구 등을 통해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제주 사람들의 지혜와 독특한 생활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관 이래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외 역사, 민속, 인류학, 미술 분야 자료를 수집, 전시, 보존하여 국내외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 1 테우
- 2 동자석
- 3 남방애





4



5

- 4 해녀 유물
- 5 목축 유물



**개관연도** 1967년  
**대표전화** 064-754-2241~3  
**웹사이트** <http://museum.jejunu.ac.kr>  
**개관시간** 10:00~17:00  
**휴관일** 매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7 제주교육박물관

JEJU EDUCATION MUSEUM

濟州教育博物館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제주 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 주는 다양한 전시와 전통문화의 기초를 다지는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야외 전시장이 있다. 대표 소장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효열록』이 있다. 이는 1834년(순조 34)에 겸방어사(兼防禦使) 한응호의 명을 받아 제주의 백성 중 효자 26명, 열녀 27명, 의사(義士) 3명 등 모두 62명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0호인 『보초등록』은 1794년(정조 18)에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필사본으로, 당시 제주에서 조정에 진상하는 말의 봉송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었다. 진상마의 종류와 수, 지역별 선박 현황, 사공 명단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영운공 고경준(靈雲公 高慶峻, 1839~1897)이 25세 때(1863) 문과 과거시험에 제출한 ‘궐포글유석공부’라는 답안지와 다양한 교과서들과 양철필통, 나무필통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에는 1955년에 제작된 전시음악 군가집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군가 및 국민가요와 민요를 엮어 만든 음악교본으로 국민 모두가 애창할 수 있도록 노래 악보와 가사를 수록하였다. 군가를 부름으로써 민족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의 사상을 건전히 하자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이외에도 미 군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다양한 교과서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개관연도 1995년  
 대표전화 064-752-9101  
 웹사이트 [www.jjemuseum.go.kr](http://www.jjemuseum.go.kr)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





## 8 아라리오뮤지엄

ARARIO MUSEUM  
阿拉里奥美术馆



아라리오뮤지엄은 영화관, 상업건물, 모텔로 쓰던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아라리오뮤지엄 탐동바이크숍,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이라는 독특한 명칭의 미술관으로 탄생했다. 과거 건물의 쓰임과 기억,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시 작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건물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새로 만들어 ‘보존과 창조’라는 아라리오뮤지엄의 콘셉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개관전 ‘By Destiny’전은 아라리오뮤지엄의 설립자 씨킴(CI KIM)이 35년간 수집해 온 아라리오컬렉션을 선보였다. 씨킴과 예술작품과의 운명적 만남은 현재







의 아라리오컬렉션을 이루게 되었고, 서울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에 이어 제주 뮤지엄 개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민의 추억과 향수가 묻어 있는 제주시 구도심의 탑동과 동문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들이 아라리오컬렉션과 제 짝인 양 맞추어져 가는 모습은 운명이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공간에도 존재함을 말해 준다.

아라리오뮤지엄 탑동시네마는 우고 론디노네, 코헤이 나와, 앤디 워홀 등 1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개성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설치가 까다롭고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국 작가 장환의 '영웅 No.2', 인도 작가 수보드 굽타 '배가 신고 있는 것을 강은 알지 못한다' 등 20m가 넘는 초대형



Kohei Nawa,  
 왼쪽부터  
 픽셀밤비 - #13  
 픽셀밤비 - #12  
 픽셀밤비 - #11  
 픽셀디어 - #38  
 픽셀디어 - #37

작품들이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다.

동문모텔은 일정하게 구획된 모텔의 객실 공간을 살려 각 층과 방마다 색다른 광경이 연출되도록 구성되었다. 현대미술의 아이콘 제이크 앤 디노스 채프만 형제, 독일 작가 A.R. 펑크, 영국 작가 안토리 고클리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세계 각국의 비디오 영상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더불어 동문모텔의 흔적을 소재로 자신의 상상을 덧붙인 일본 작가 아오노 후미야키의 '동문모텔에서 꿈', 제주인의 일상이 담긴 저수조의 벽화 이미지와 실제 제주의 모습을 교차시킨 한국 작가 한성필의 해녀 시리즈 또한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개관 전시를 위해 작가들이 특별히 제주에 머물며 작업한 작품들로, 작가들의 시선으로 본

전시장의 과거 기억과 제주의 일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탐동시네마와 동문모텔이 아라리오컬렉션을 소개하는 뮤지엄이라면 탐동바이크  
숍은 한 명의 작가를 집중해서 조명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2014  
년 10월에 개관한 세 개의 미술관 외에 2015년 4월 동문모텔 II를 통해 실험적인  
신구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이 공간에서는 지역과 연령을 가리  
지 않고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가들이 제주도의 오래된 모텔을 기반으로 공간  
에 집중한 전시가 소개될 예정이다.

아리리오뮤지엄의 설립자 씨킴은 세계의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손꼽히는 컬렉터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컬렉션들은 주로 컨템포러리 작품들로 제주에 모두 열두  
개의 미술관을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의 미술관들이 제주에 미칠 문화적  
영향은 제주가 관광의 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도시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ARARIO MUSEUM

개관연도	2014년
대표전화	064-720-8200
웹사이트	<a href="http://www.arariomuseum.org">www.arariomuseum.org</a>
개관시간	10:0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탐동로 14







Subodh Gupta, 배가 싣고 있는 것을 강은 알지 못한다



## 9 넥슨컴퓨터박물관

NEXON COMPUTER MUSEUM  
纳克森电脑博物馆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넥슨컴퓨터 박물관은 한국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Nexon)이 설립한 박물관으로 IT강국이자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 된 대한민국 디지털 역사를 관람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다. 인류의 삶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킨 컴퓨터와 그 발전에 기여해 온 게임의 역사를 함께 조망함으로써 우리 미래를 상상





해 볼 수 있도록 만든 박물관이다.

박물관 내부는 컴퓨터 회사와 걸맞게 유능한 컴퓨터 관련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컴퓨터와 관련된 궁금증을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며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기들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넥슨이 제주에 본사를 두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제주도가 앞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물관 내부는 컴퓨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컴퓨터 관련 희귀 소장품들과 컴퓨터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게임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넥슨컴퓨터박물관은 ICOM(국제박물관협회)에 등록된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 박물관으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로 전 세계 6대만 남아 있는 구동 가능한 Apple의 첫 번째 컴퓨터인 Apple1을 비롯하여 최초의 마우스인 앵겔바트(Engelbart), 최초의 CPU와 비디오 게임기 등 오늘날 컴퓨터 문화의 시초가 된 관련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련 전시품들과 게임기구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과 업무협약으로 지역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문 사회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콘텐츠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워크숍 프로그램, 어린이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 인트(int)는 무수한 회로들로 만들어진 설치미술과도 같이 디자인되어 있다. 판매하는 음식 모양이나 이름은 버퍼링, 키보드와 플, 마우스빵과 같이 컴퓨터와 게임을 접목시킨 개성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부대시설인 아이템숍에서는 넥슨 캐릭터 상품들과 다양한 게임과 컴퓨터 관련 디자인 상품들을 판매한다.



<b>개관연도</b>	2013년
<b>대표전화</b>	064-745-1994
<b>웹사이트</b>	<a href="http://www.nexoncomputermuseum.org">www.nexoncomputermuseum.org</a>
<b>개관시간</b>	하절기(6~8월) 10:00~20:00 동절기(9~5월) 10:00~18:00
<b>휴관일</b>	매주 월요일, 설·추석 연휴
<b>주소</b>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198-8









## 10 제주러브랜드

JEJU LOVE LAND  
济州爱情乐园



제주러브랜드는 성(性)을 주제로 한 현대적 감각의 테마조각공원이다. 올바른 성문화를 알리기 위해 예술적으로 만든 작품들을 야외조각공원에 설치해 놓았다. 야간 관람을 위해 설치한 조명과 이국적인 조경을 도입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즐거움과 해학이 가득한 테마파크로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 제주러브랜드

개관연도	2004년
대표전화	064-712-6988
웹사이트	<a href="http://www.jeju Loveland.com">www.jeju Loveland.com</a>
개관시간	09:00~24: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894-72



## 11 제주아이스뮤지엄+3D착시뮤지엄

JEJU ICE MUEUM+3D OPTICAL MUEUM

的冰雕博物馆+三维错觉艺术



제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이스뮤지엄은 얼음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조각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360도 5D영상관과 3D 착시아트관 등을 갖추고 있다.

3D 착시아트관에서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 꿈꿔 왔던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추억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며, 5D영상관에서는 360도로 둘러싸인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영상이 내 몸을 통과하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제주아이스뮤지엄 + 3D착시뮤지엄

개관연도	2012년
대표전화	064-742-3700
웹사이트	<a href="http://jejuicemuseum.com">http://jejuicemuseum.com</a>
개관시간	09:00~21: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수길 69









## 12 성안미술관

SEONG-AHN ART MUSEUM



성안미술관은 제주도의 미술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미술작품을 소개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성안교회 부설 미술관인 이곳은 대관을 할 수 있는 전시시설과 자료실, 수장고, 세미나실, 교육실 등이 있으며 북카페와 도서관도 있다.



## 성안미술관

개관연도	2007년
대표전화	064-729-9175
웹사이트	<a href="http://www.cafe.daum.net/seongahnart">www.cafe.daum.net/seongahnart</a>
개관시간	10:00~18:00
휴관일	매주 <b>월요일</b> , 국경일, 명절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470







# 제주서부권



## 제주현대미술관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의 또 다른 문화 이색지대 ‘제주현대미술관’은 자연과 예술, 사람과 문화가 서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동시대 미술관(contemporary art)이다. 제주 현무암으로 직조된 진회색의 미술관 외부는 하늘색과 나무색과 어우러져 부드럽고 안온하다. 또한 현무암을 잘게 썰어 커커이 쌓아올린 모양은 제주 돌담을 떠올리게 한다.

이 건축물은 제주 김석윤 건축가의 공립미술관 현상설계 최우수 당선작품으로 복층 구조의 전시실과 한 전시실을 지나 다음 전시실로 걸음을 옮기며 잠시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분절감 평면 계획은 관람객들에게 여유를 갖게 한다.

본관 상설전시실에는 대한민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 김홍수 화백의 ‘하모니즘’ 작품과 ‘해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분관 전시실에는 원로 서양화가 박광진 화백의 작품을 연중 교체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 밖에는 국제조각심포지엄으로 구성된 야외조각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 좋다.

제주현대미술관을 에워싸듯 자리하고 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1호로 지정(2010년)된 예술인마을문화지구이자 예술인 창작공간이다. 회화, 조각, 서예, 사진, 야생화, 한국화, 문인화 등 15개 장르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다.

한국현대미술의 아방가르드 박서보 화백, 서양화가 박광진 화백, 서예가 동강 조수호 선생, 규당 조종숙 선생, 한글 현병찬 선생, 문인화 계정 민이식 선생, 소운 이송자, 소심 인민아, 종이박물관 김경 선생, 조각가 박석원, 전문감정인 양의숙, 시사만화가 김경수, 한국화 김현숙, 돌하르방 이창원, 피아니스트 강경희, 갤러리노리의 이명복 작가,





서양화가 김성호, 수필가 유현수, 중국 현대미술가 평정지에 등의 개성 있는 작업실과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어우러진 예술인마을은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예술인마을 내에는 세계야생화박물관인 방림원과 구당미술관, 현 갤러리, 먹글이 있는 집 등 예술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이 있으며, 인근에 저지오름과 생각하는정원, 평화박물관, 유리의성 등이 있어 품격 높은 제주 여행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이색장소 중 한 곳이다.

김창우 전 제주현대미술관장





## 1 제주현대미술관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济州现代美术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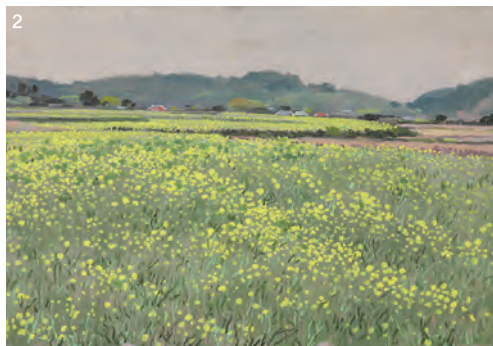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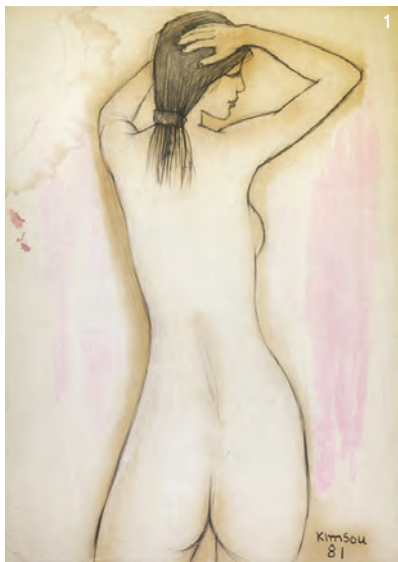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현대미술을 보여 주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터전인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통해 제주를 만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김홍수 화백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실과 주로 자연을 주제로 작업한 박광진 작가의 기증품으로 전시되는 분관 전시실, 야외조각공원과 다양한 음악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가 있다.

미술관 본관을 중앙에 두고 넓은 미술관 숲 외곽에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아틀리에가 예술인 마을을 이루고 있다. 또한 물방울 작가 김창열 화백의 기증품이 전시될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2016년 6월 개관 예정이다.



- 1 김홍수, 거울 앞에서
- 2 박광진, 유채꽃
- 3 Mauro Staccioli





**개관연도** 2007년  
**대표전화** 064-710-7801  
**웹사이트** <http://www.jejumuseum.go.kr>  
**개관시간** 09:00~18:00  
 하절기(7~9월) 09:00~19:00  
**휴관일** 매주 **수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 물방울을 담은 미술관 김창열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은 제주도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놓인다. 마을을 산책하다가 발견되는 미술관이 되도록 터 위에 미술관을 쌓아올리는 것이 아닌 미술관이 터가 되도록 대지와 건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갔다. 미술관이 땅의 일부로 지형에 스며들게 하여 대지를 거닐 듯 미술관 지붕 위를 거닐 수 있게 자연의 일부로 스며들게 하였다.

이것은 김 화백이 지속적으로 그려온 물방울에 비해 캔버스의 배경은 캔버스, 신문지, 모래, 나무판, 천자문이 바탕이 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해 갔는데 캔버스는 물방울이란 매개를 통해 표면을 투시하고 있는 단순한 평면(平面)이 아닌 표면(表面)의 의미를 담은 작품 철학과 일맥상통하여 땅의 형국이 미술관의 표면이 되도록 했다.

물방울은 비로소 빛과 그림자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물방울을 존재하게 하는 빛과 그림자를 미술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 공간에 상징적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추상적인 공간으로 빛을 담은 광정(光庭)은 빛의 우물로서 우물 정자 모양으로 형성된 회랑으로 연장된다. 빛의 우물로 쏟아내린 빛은 회랑 벽을 통과하여 빛과 어둠의 시퀀스로 회랑을 조성하고 이를 따라 화백의 그림을 관람하게 되며 이 상징화된 회랑에서 사유의 시간과 조우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단속적인 시각 경험만이 아닌 연속적 심층 경험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화백의 그림을 내 앞에 두는 여정엔 외부공간에서부터 전시장 내부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철학을 표출하려 하였으며, 내면세계의 공간화를 이루고자 했다. 이렇게 공간 생성은 화백의 철학에 철저하게 다가가고자 하였으나 미술관을 찾는 이에게는 열려 있는 미술관이 되고자 같은 레벨의 공간으로 계단 없이 구성하여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미술관이 되고자 했다.

홍재승 건축가





## 2 방림원

BANGLIMWON  
方林園



야생화 박물관인 방림원은 한경면 저지리 예술인마을 안에 있다.

설립자 방한숙 원장의 열정과 집념으로 만들어진 방림원은 전문가가 아닌 설립자의 이상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결과물은 놀랍게도 제주에서 꽃자왈을 제대로 표현하였다는 전문가의 평을 받고 있다.

방림원은 4천여 종의 다양한 야생화가 있으며 근처에 저지오름과 금악오름이 있다. 또한 멀지 않은 곳에 협재해수욕장과 금릉해변이 있다.



방림원

개관연도	2005년
대표전화	064-773-0090
웹사이트	<a href="http://www.banglimwon.co.kr">www.banglimwon.co.kr</a>
개관시간	하절기 08:00~18:00 동절기 08:30~17: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 방림원

제주에서 가장 제주다운 식물원을 꼽으라면 단연 방림원이 떠오른다. 방림원은 낮설다. 왜 낮설까? 그것은 검은 현무암과 현무암이 만든 곳자왈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곳자왈이란 걸쭉한 용암이 흘러 굳고 쪼개지면서 만들어진 요철(凹凸) 지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덩굴과 푸나무들이 어우러져 정글 같으며, 바닥에서는 쪼개진 바위 틈새로 더운 김이 올라와 추운 겨울에도 늘 푸른 고사리들을 볼 수 있어 태고의 신비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방림원은 현무암을 쌓아 곳자왈을 재현해 놓음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제주만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그래서 육지부 사람들은 낮설다. 낮설음은 곳곳에 배어 있다. 외국에서 수집해 온 야생화들이 전시되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낮설음은 여행지의 만족도에 중요한 인자다.

우종영 나무의사









### 3 생각하는정원

SPIRITED GARDEN  
思索園



생각하는정원은 장쩌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하여 이곳을 방문한 세계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분재와 나무와 돌을 조화롭게 이용한 정원이다. 한 농부의 꿈과 집념으로 설계도 없이 만들었다는 ‘생각하는 정원’은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분재들과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만을 이용하여 쌓아 놓은 돌담, 귀빈들의 연회장소로 제공되는 비밀의 정원, 철학자의 정원 등





설립자의 열정과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다. 전시관에는 중국의 유명인사들로부터 기증받은 미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2015년 4월 8일 이 ‘생각하는정원’이 중국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는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소개한다.

제주에서 황무지를 분재 정원으로 가꾼 이야기가 중국 교과서에 실렸다. 제주시 한경면의 분재정원이자 유명 관광지인 ‘생각하는정원’은 중국 런민교육출판사에서 발행한 9학년(중학교 3학년 과정) 교과서 ‘역사와 사회(下)’에 성범영 원장(76)이 한국 정신문화의 상징적 인물로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는 9월부터 의무교육 교재로 쓰인다. 성 원장은 이 교과서 제5단원 ‘냉전시기의 세계’에 나온다. 한국이 짧은 시



간에 고속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성 원장을 개척정신의 표본으로 소개한 것이다. 교과서는 “성범영은 일개 농부의 힘으로 몇 년을 소비해 분재원 정원을 만들었다. 한국의 개척, 진취적인 강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상징이 되었다”고 기술했다. 20여 년 동안 15만 톤의 돌과 흙을 운반해 3만여m<sup>2</sup>를 정원으로 가꾼 내용도 함께 담았다. 1963년 제주에 와서 정착한 뒤 1992년 개관한 ‘생각하는정원’은 1995년 장쩌민 주석, 1998년 후진타오 부주석의 방문으로 중국에 널리 알려져 “일개 농부가 이룩한 이곳의 개척정신을 배우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고, 이후 중국 관리들에게 이곳은 한국 방문 때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한편 중국에서의 초청이 줄을 이었고 중국 신문, 방송 등 언론에 600여 차례 이상 소개되었다.

산의 돌과 흙을 파내 산을 옮기려 했다는 중국 고사성어 ‘우공이산’을 빗대어 한국의 ‘우공’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숯한 고난을 겪었다.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금융권에서 분재와 정원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 한때 부도위기를 겪기도 했다. 성 원장은 “정원을 있게 한 제주는 몸과 마음의 고향이다. 정원은 제주의 햇살과 바람, 비와 구름에 사람의 손길을 더한 것이다. 그 속에서 평화는 식물을 바라보며 너와 나를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정원은 평화의 시작이자 완성이다”라고 말했다.

## 생각하는정원

— SPIRITED GARDEN —

개관연도	1992년
대표전화	064-772-3701~3
웹사이트	www.spiritedgarden.com
개관시간	08: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 4 제주 유리의성·마법의숲

JEJU GLASS CASTLE

玻璃之城, 魔法森林



유리를 소재로 한 박물관이자 유리조형예술 체험 테마파크. 이탈리아, 체코, 중국 등 세계 유명 작가와 국내에서 활동중인 유리작가들의 작품을 실내외 전시장에 전시해 놓았다. 유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형태의 유리조형작품과 설치예술품들이 전시된 야외전시관도 있다. 부대시설로는 제주의 원시림인 곶자왓 숲길을 유리테마에 맞게 조성한 마법의숲, 유리공예체험관, 현대유리전시관, 한식당, 편의점이 있다.





## 제주 유리의성·마법의숲

개관연도	2008년
대표전화	064-772-7777
웹사이트	<a href="http://www.jejuglasscastle.com">www.jejuglasscastle.com</a>
개관시간	09:0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 5 한림공원

HANLIM PARK  
翰林公園



한림공원은 한림읍 협재해변에 있는 오래된 수목원이다. 설립자 송봉규 선생이 불모의 황무지 10만여 평 모래밭에 야자수 씨앗을 파종하여 녹색의 울창한 수목원으로 만든 개척정신의 현장이다.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진 한림공원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과 연간 100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다. 하늘 높이 솟은 야자수길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36호인 협재굴, 쌍룡굴이 있으며, 수목원 주변에 금릉해변과 협재해수욕장이 있다.



개관연도	1987년
대표전화	064-796-0001
웹사이트	<a href="http://www.hallimpark.co.kr">www.hallimpark.co.kr</a>
개관시간	08:3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 6 그리스신화박물관

GREEK MYTHOLOGY MUSEUM  
希腊神话博物馆



“유럽에 가지 않고 유럽 박물관을 만난다.” 상상력과 창의력의 뿌리, 3천 년 역사의 지혜이자 현대인의 필수 교양인문인 그리스 신화를 트릭 아이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명화와 대리석 조각상 200여 점을 재현해 놓았으며, 관람객이 그리스인으로 변신하는 새로운 예술체험을 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2차원 평면 작품을 3차원 입체로 보이게 하는 트릭아이미술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 그리스신화박물관 트릭아이미술관

**개관연도** 2012년  
**대표전화** 064-773-5800  
**웹사이트** [www.greekmythology.co.kr](http://www.greekmythology.co.kr)  
**개관시간** 하절기 (7~8월) 09:00~20:00  
 동절기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 7 제주공룡랜드

JEJU DINOSAUR THEME PARK

济州恐龙乐园



제주공룡랜드는 한·중·일 합작으로 공룡을 테마로 만든 가족공원이다. 중국과학원 고척추생물 및 고인류연구소(IVPP)의 고증과 일본 DM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가운데 가장 큰 높이 28m의 브라키오사우르스,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르스, 사납기로 유명한 벨로시랩터, 3개의 뿔이 달린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 등 200여 마리의 다양한 작동과 고정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장 외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앵무새 사파리, 어른들을 위한 허브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동산 등이 있다.





제주최대 종합체험테마파크  
**제주공룡랜드**

개관연도	2007년
대표전화	064-746-3060
웹사이트	www.jdpark.kr
개관시간	하절기 09:00~20:00 동절기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 8 나비공원 프시케월드

BUTTERFLY PARK PSYCH WORLD

蝴蝶公园 普塞克世界



프시케월드는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 나비테마공원으로 관람과 체험을 통해 흥미와 학습적 성과를 얻을 수 있게 꾸며 놓았다.

2008년 혁신관광문화사업 대상과 2010년 문화관광부분 경제대상을 수상한 곳으로 제주공항에서 20분, 중문관광단지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다.

전시실에는 한국나비 전종 205종이 전시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굴뚝나비와 상제나비 등 멸종 위기종 나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스터디월드에서는 나비의 한살이와 곤충의 번성, 곤충의 다양한 구조, 생존전략, 번식, 곤충의 실용성에 대한 여러 전시물들이 있어 생명의 신비감과 생명과학의 학습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대시설로는 스터디월드, 전시실, 거울궁전, 자일파크, 수제 초콜릿 체험관이 있다.



## **프시케월드**

개관연도	2007년
대표전화	064-799-7272
웹사이트	<a href="http://www.psycheworld.net">www.psycheworld.net</a>
개관시간	08:3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7





## 9 테디베어사파리 테지움

TEDDY BEAR SAFARI TESEUM

济州泰迪熊博物馆



테디베어사파리 테지움은 테디베어의 본고장 독일에서 작품활동을 해 온 디자이너들과 국내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전시관 안에는 아프리카 동물들을 실제 크기로 제작한 사파리 존이 있다. 또한 전시관 내부 작품들을 만져보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연도	2008년
대표전화	064-799-4820
웹사이트	www.teddybearsafari.com www.teseumjeju.com
개관시간	하절기(3~11월) 08:30~20:00 동절기(12~2월) 08:3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 10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JEJU MUSEUM OF WAR HISTORY&PEACE

濟州戰爭歷史平和博物館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지하 요새로 박물관장의 부친인 이성찬 씨가 당시 22세에 2년 6개월 동안 노역을 했던 현장 위에 세워졌다. 박물관은 직접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알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전시관은 일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선조들의 생활상과 당시 생활용품, 군대용품을 비롯한 사진자료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개관연도	2004년
대표전화	064-772-2500
웹사이트	<a href="http://www.peacemuseum.co.kr">www.peacemuseum.co.kr</a>
개관시간	08:30~18:00 동절기 08:30~17: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 63







## 제주도의 식물원 이야기

제주도는 섬 전체가 식물원이다. 공항을 나서면 야자수들이 신전을 떠받치는 회랑의 열주처럼 까마득하고 기름기 머금은 상록수들은 생을 찬미하듯 반짝거린다. 수평을 거부한 한라산은 고도대마다 다른 식물들을 품고 있고 몰려오는 아열대 기후로 인해 추가되는 종들로 섬 전체가 낮은 식물들로 가득하다.

도서관 속의 서점, 유람선 속의 풀장처럼 식물원 속의 식물원은 어떤 모습일까? 그곳에 가기만 하면 들뜬에선 알 수 없는 식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마법의 눈이 떠지는 곳일까? 아니면 시냇물 소리 같은 모차르트 음악이 흐르고 산책로 양옆에 서 있는 나무들이 국빈을 맞이하는 의장대처럼 도열해 있는 곳? 온갖 상상을 하며 식물원 순례를 해 본다.

식물원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식물원의 역사는 인류 조상들이 농경생활을 하면서부터 먹거리가 될 만한 곡식과 상처를 낫게 해 주는 약초들을 모아 심으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식물원의 형태는 유럽의 식민지정책으로 신천지에서 보내 오는 다양한 식물들을 가꾸면서부터 온실을 짓기 시작했으며 그때의 모습이 현재 식물원의 원형이 된다.

지금의 식물원은 노아의 방주 역할도 한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듯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온갖 식물들을 가져가야 한다. 식물은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식물 없이 살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홀로세에 접어들면서부터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에 이른 것은 인간의 활동 때문이 관여했으므로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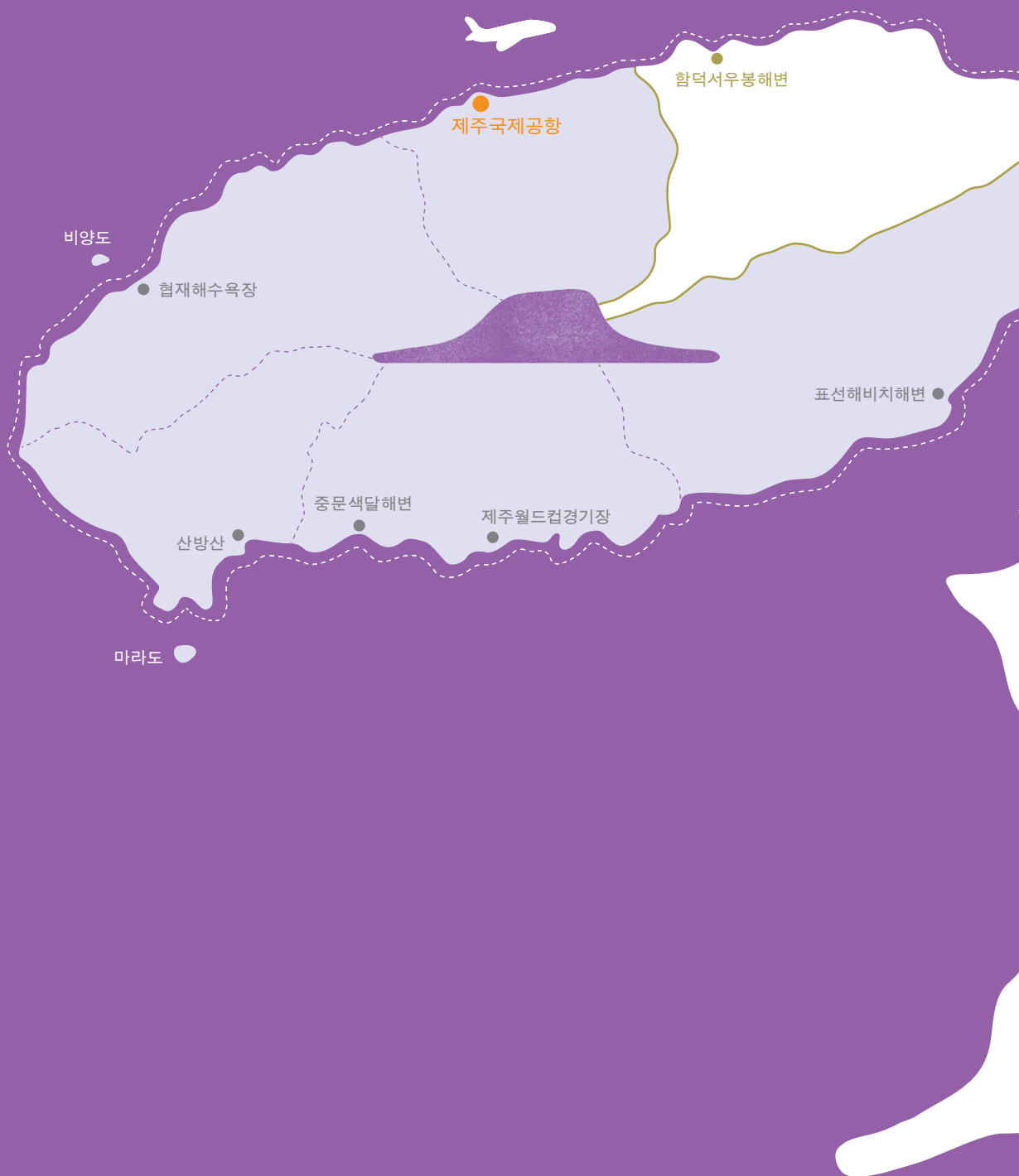
1 카멜리아힐 2 여미지식물원 3 생각하는정원 4 방림원

식물원에는 진기한 식물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들판에서 보아 왔던 들꽃들도 있다. 고향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이 아닌 곳이 많다. 개발이 되었거나 파헤쳐져서 옛일을 추억할 수 없으나 우연히 식물원에서 과거의 나와 마주하게도 된다. 서양의학을 1300년 동안이나 지배해 온 갈레노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는 자연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자연은 나의 환부를 보여 주지도 않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식물원은 오감을 일깨워 아련한 과거로 이끌기도 하고 내일을 약속하는 보증수표이기도 하지만 여행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휴식과 마음의 치유다. 날카로운 수평선에 마음을 빼앗겼거나 바람에 지쳤을 때 식물원을 찾을 일이다. 그곳에는 여행의 독을 말끔히 씻어 주며 상처 난 가슴을 어루만져 줄 정제된 자연이 있다.

우종영







# 제주시 동부권





## 1 제주돌문화공원

JEJU STONE PARK  
济州石头文化公园



제주의 중산간 곳자왈 내에 위치한 제주돌문화공원은 돌 박물관 및 오백장군갤러리, 제주 전통 초가마을 같은 전시, 관람시설과 휴양림, 숙박시설 등으로 조성된 문화생태공원이다. 한라산 영실에서 전해져 오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전설을 주제로 제주 신화와 돌 민속문화를 주요 테마로 제주의 형성에서부터 제주인의 생활 모습을 한 곳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다.



예로부터 여자, 바람, 돌이 많은 제주도는 구멍이 발달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논농사 대신 밭농사와 해녀가 발달하였다. 제주의 돌 문화란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자체를 상징한다. 지질전문가와 관람객들로부터 제주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최고의 공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제주의 역사, 신화, 민속 등에 관한 전시와 더불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는 돌문화공원은 곳자왈 트레킹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 공원에는 전통 제주 초가 숙박동, 생태 관찰로, 오름 등반로가 조성된 교래자연휴양림이 있다. 공원이 있는 조천읍 교래마을은 ‘토종닭 유통특구’로 지정된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하늘연못





- 1 어머니의 방  
(설문대할망을 상징한 웅암석)
- 2 제주의 두상석

## 제주돌문화공원 JEJU STONE PARK

개관연도	2006년
대표전화	064-710-7731
웹사이트	<a href="http://www.jejustonepark.com">www.jejustonepark.com</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매달 첫째 주 <b>월요일</b>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 2 해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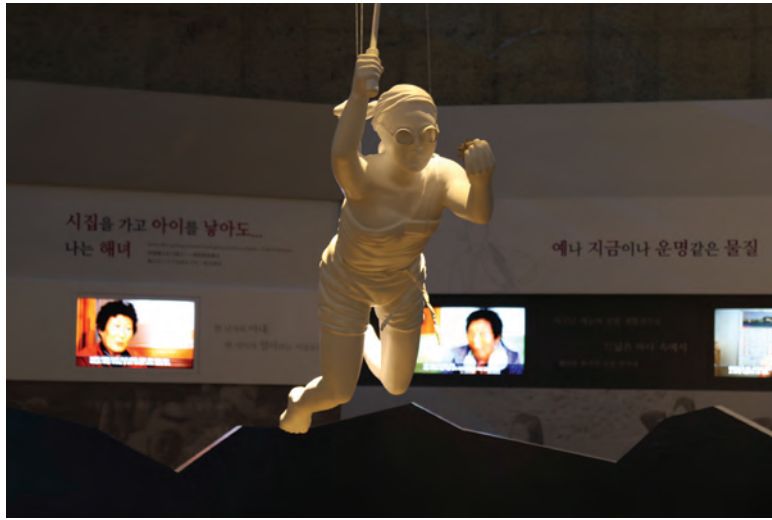
HAENYEO MUSEUM  
海女博物館



제주도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해녀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존재로 주목받아 왔다. 해녀들은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전국 각처와 일본 등지로 원정 물질을 가면서 제주 경제의 주역을 담당했던 제주 여성의 상징이다.

제주 해녀들은 1932년 일제의 수탈에 맞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을 일으켜 자존의 역사를 만들기도 했다. 이 운동은 여성들이 주도한 유일한 항일운동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은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연두망 작은 동산에 있으며,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해녀들의 항일운동 정신을 기리고자 조성하였다.

제주해녀박물관은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제주 해녀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 해녀박물관

개관연도	2006년
대표전화	064-782-9898
웹사이트	<a href="http://www.haenyeo.go.kr">www.haenyeo.go.kr</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매월 첫째, 셋째 <b>월요일</b> , 매년 1월 1일, 설·추석 당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 3 다희연티뮤지엄

DAHEEYEON  
茶喜然



다희연티뮤지엄은 복합허브테마공원으로 녹차밭과 천연동굴카페, 차문화원 등 다양한 에코투어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다. 차문화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중 99인이 만든 명품 다기와 다희연의 녹차상품을 만날 수 있고, 2층에 다도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 다혜연티뮤지엄

개관연도	2010년
대표전화	064-782-0005
웹사이트	<a href="http://www.daheeyeon.com">www.daheeyeon.com</a>
개관시간	하절기 09:00~19:00 동절기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7





## 4 에코랜드

ECOLAND  
生态乐园



교래리의 드넓은 꽃자왈 원시림 지역에 위치한 에코테마파크. 영국에서 제작된 1800년대 증기기관차인 볼드윈 기종을 모델화한 링컨 기차를 타고 꽃자왈 원시림을 여행할 수 있다.

꽃자왈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하여 북방 한계 식물과 남방 한계 식물들이 같이 자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꽃자왈의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테마가 있는 역에 내려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에코랜드

개관연도	2010년
대표전화	064-802-8020
웹사이트	<a href="http://www.ecolandjeju.co.kr">www.ecolandjeju.co.kr</a>
개관시간	하절기 08:30~19:30 동절기 08:3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 5 메이즈뮤지엄

MAZE MUSEUM  
迷路博物館



미로의 기원과 역사를 입체영상과 유물로 소개하고, 17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퍼즐과 보드게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퍼즐을 수집하고 발굴하며 이와 연관된 전시기획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실은 미로전시실과 퍼즐전시실, 퍼즐스퀘어, 착시광장, 지식미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퍼즐전시실에는 근대 최초 퍼즐 개설서인 *Puzzles old and New* (1893)에 소개된 퍼즐큐브부터 오늘날의 큐브까지 전시되어 있다.

부대시설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외부에 돌하르방 미로, 여자(해녀) 미로, 바람 미로가 있어 흥미로운 미로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접 밭에서 수확한 야채들로 제공하는 메이즈 웰빙식당도 운영하고 있다.

### 메이즈뮤지엄

개관연도	2011년
대표전화	064-784-3838
웹사이트	<a href="http://www.mazeland.co.kr">www.mazeland.co.kr</a>
개관시간	동절기(10~1월) 09:00~18:00 하절기(4~9월) 09:00~18:3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 6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THE THEME PARK OF MEMORIES "SEONNYEO & NAMUGGU"



1950~1980년대의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테마 전시관.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던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 부모님의 고단했던 삶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각설이가 있는 옛 장터, 옛 도심의 달동네, 학교 재현관, 추억의 나무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우천시에도 관람이 가능하며, 어부생활관과 민속 박물관, 자수박물관, 학교 재현관, 추억의 DJ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가 또 다른 추억을 되새기게 해 준다.





## 그 시절 추억의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개관연도	2007년
대표전화	064-784-9001
웹사이트	<a href="http://www.namuggun.com">www.namuggun.com</a>
개관시간	하절기 08:30~19:00 동절기 08:30~일몰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 7 제주미니랜드

JEJU MINI LAND  
济州迷你乐园



제주미니랜드는 세계문화유산의 나라, 위인의 나라, 환상과 동화의 나라, 공룡의 나라, 체험의 나라, 매직 거울의 나라, 깜놀 나라 등 7개 테마를 가진 실내외 복합 미니어처 테마파크다. 새롭게 개관한 제2전시관 서프라이즈관에서는 그림과 영상을 접목시킨 3D방식의 라인파사드와 아쿠아리움, 영상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제주미니랜드 근처에는 사려니숲길, 절물자연휴양림, 비자림, 에코랜드, 교래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개관연도	2001년
대표전화	064-782-7720
웹사이트	<a href="http://www.jejuminiland.co.kr">www.jejuminiland.co.kr</a>
개관시간	하절기 08:30~19:30 동절기 08:30~17:3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 8 한울랜드

HANULLAND MUSEUM  
矿物-化石博物馆, 风筝博物馆



한울랜드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제주의 독특한 환경에서 제주 화석이 갖는 의미와 인류와 자연과의 상호관계를 풀어 주는 화석과 광물들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화석 전문 박물관이다.

전시관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희귀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부대시설로 제주의 화석을 이용한 화석 체험과 바람이 많은 제주에 어울리는 '연'을 주제로 한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 1 세계 최대 나무뿌리
- 2 세계 최대 공룡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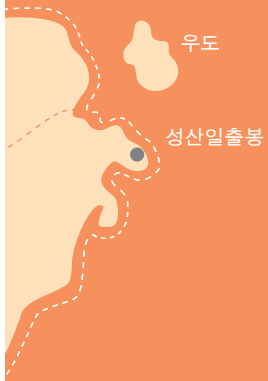
개관연도 2014년  
 대표전화 064-783-5788  
 웹사이트 [www.hanulland.co.kr](http://www.hanulland.co.kr)  
 개관시간 하절기 08:30~19:00  
 동절기 08:3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 서귀포시 시내권



8 박물관은 살아있다

4 여미지식물원

9 민거나말거나박물관 제주  
제주테디베어뮤지엄

6

12 조안베어뮤지엄

중문색달 해변

11 아프리카박물관

제주월드컵경기장

14 SOS 박물관

13

10 세계조가비박물관

3

석부작박물관

5

1

이중섭미술관

2

왈종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립 기당미술관

감귤박물관 7

## 1 이중섭미술관

LEEJUNGSEOB ART MUSEUM

李仲燮 美術館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언덕에 있는 이중섭미술관은 2003년 가나아트 이효재 회장이 이중섭의 작품 등 66점을, 2003년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이 이중섭의 작품 등 54점을 기증하여 1층 미술관으로 등록되었다.

이곳에는 이중섭 작품 16점, 장욱진, 백남준, 유영국 등 현대미술작품 200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1층 상설전시실에는 이중섭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2층 기획 전시실에는 소장품과 제주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전시를 하고 있다.

부대시설로 이중섭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와 공예공방이 있고, 주말에는 미술관 주변 이중섭거리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체험과 아트마켓 등이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서귀포의 명소다.

### 이중섭미술관

개관연도	2002년
대표전화	064-760-3567
웹사이트	<a href="http://jslee.seogwipo.go.kr/">http://jslee.seogwipo.go.kr/</a>
개관시간	09:00~18:00, 하절기(7~9월) 09:00~20: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섭로27-3





- 1 이중섭, 선착장을 내려다본 풍경
- 2 이중섭, 꽃과 아이들

## 이중섭과 서귀포

이중섭은 1916년 평남 평원에서 태어나 1934년 도쿄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했으나 1년 만에 그만두고 문화학원에 들어갔다. 문화학원 재학 중 일본자유미술가협회 전람회에 작품 5점을 출품, 입선하여 협회상을 받았다.

1945년 문화학원에서 만난 2년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와 원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인에게 이남덕(李南德)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중섭은 원산사범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했으나 일주일 만에 사직하고 닭을 기르며 닭 그림에 열중했다.

1950년 12월 이중섭은 가족과 함께 피란길에 올라 원산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부산으로 갔다. 이어서 한 달 후 서귀포로 옮겨 갔다. 그 시절 이중섭의 가족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바닷가에서 게를 잡아 반찬으로 삼았다.

서귀포는 이중섭 예술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되었다. 가족과 함께 보낸 서귀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나 작품세계에 있어서 시공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섬, 게, 물고기, 아이들 등의 소재는 이중섭의 유화와 은지화에 자주 등장한다.

1951년 12월 그의 가족은 제주를 떠나 다시 부산으로 향한다. 국방부 정훈국 종군화가단에 입단한 그는 양담배갑 속 은지를 모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즈음 장인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생활고를 못 이겨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냈다. 1955년 1월 미도파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어 그림이 많이 팔렸으나 찾아오는 사람들과 술로 지내다보니 빈털털이가 되었다.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던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 무렵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은지화 3점을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으나, 1956년 9월





6월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간장염으로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홀로 숨을 거두었다.  
그가 작고한 해에 조각가 차근호에 의해 묘비가 세워졌다.

1960년 부산 로터리다방에서 지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로 최초 유작전이 열렸으며, 1972년 서울 현대화랑(현 갤러리현대)에서 17주기 기념 추모전이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1986년 서울 호암갤러리에서 대대적인 회고전이 열렸고 이중섭의 재평가 작업이 전개됐다. 1995년 문화체육부 '95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그가 살았던 서귀포 거주지에 기념표석을 건립하고 1996년 서귀포에 이중섭거리(360m)를 지정했으며, 1997년 이중섭 거주지를 복원했다.

1999년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에 이중섭이 선정돼 서울 갤러리현대에서 특별전이 열렸으며, 다시 2015년 1월 5일~22일까지 '이중섭의 사랑, 가족'전이 있었다. 2014년 전시에서는 뉴욕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은지화 3점이 60년 만에 공개되었고 미공개 편지화 20여 점이 함께 전시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이중섭의 아내 이남덕 여사의 일생을 담은 기록영화가 제작되어 전시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학예사



은지화, 개와 가족



## 2 월중미술관

WALCHONG ART MUSEUM  
曰鐘美術館



작가 이월중의 작품세계를 건축적 풍경으로 해석하여 지은 월중미술관은 서귀포시 동홍동 정방폭포 주변에 있다. 작가가 살던 집을 헐고 큰 작업실을 갖고 싶어 스위스 남부지방 루가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 건축가 다비드 마클로와 함께 지었다.

전시관이 있는 본관 건축물은 월중이 평소 좋아하던 조선시대 백자 찻잔을 모델로 지었다. 아트숍은 건축가 다비드의 설계안대로 지어 미술관은 둥글고 아트숍은 각이 많은 건축물이 되어 서로 대비된다.

본관은 월중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아트숍은 월중의 작품 판화와 디자인 상품들을 판매한다. 아트숍 2층에 카페가 있다.











이왈중, 제주생활의 중도

## 이왈중 미술관

개관연도	2013년
대표전화	064-763-3600
웹사이트	<a href="http://www.walartmuseum.or.kr">www.walartmuseum.or.kr</a>
개관시간	10: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214번길 30





### 3 제주특별자치도립 기당미술관

GIDANG ART MUSEUM

寄堂美術館



기당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미술관으로 제주가 고향인 채일교 포 사업가 기당 강구범이 건립하여 서귀포시에 기증하였다. 서귀포시 남성중로(서흥동)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 한라산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나선형의 동선으로 한국의 전통가옥을 연상시키는 천장과 자연광을 받아들인 건축이 특이하다.

기당미술관은 제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국내외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김기창, 장우성, 서세옥, 송수남, 민경갑, 박노수, 장리석, 박서보, 김원, 이대원, 강승희 등 국내 화단의 주요작가들의 작품을 소장,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대표적 화가 변시지의 작품이 연중 전시되고 있다.

‘폭풍의 화가’로 알려진 변시지의 작품은 현재 미국 스미소니언 뮤지엄에 전시되고 있으며, 기당미술관에 변시지 화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특별전시실이 있어 작가의 생전 작품활동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적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 기당미술관은 삼매봉도서관과 최근 개관한 서귀포 ‘예술의 전당’과 인접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립 기당미술관

개관연도	1987년
대표전화	064-733-1586
웹사이트	<a href="http://www.gidang.seogwipo.go.kr">www.gidang.seogwipo.go.kr</a>
개관시간	09:00~18:00 하절기(7~9월) 09:00~20:00
휴관일	매주 <b>화요일</b> , 설·추석 연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 1 변시지, 한라산
- 2 이대원, 농원



#### 4 여미지식물원

YEOMIJI BOTANIC GARDEN  
如美地



제주의 대표적 식물원인 여미지식물원은 규모나 구성, 전시되어 있는 식물 등 모두 최상급에 속한다. 특히 3,800여 평의 유리온실인 ‘신비의 정원’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꽃과 식물에 관한 각종 전시가 열리는 중앙호로가 꽃의 정원, 물의 정원, 선인장 정원, 열대 정원, 열대과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38m 높이의 전망 타워가 있다.



1,000여 종의 난대 및 온대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옥외식물원은 한국, 일본, 프랑스 정원, 잔디광장, 허브정원, 습지원, 호스티원, 제주자생식물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미지식물원은 2003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인공증식과 자생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멸종위기식물과 식충식물, 허브식물을 관찰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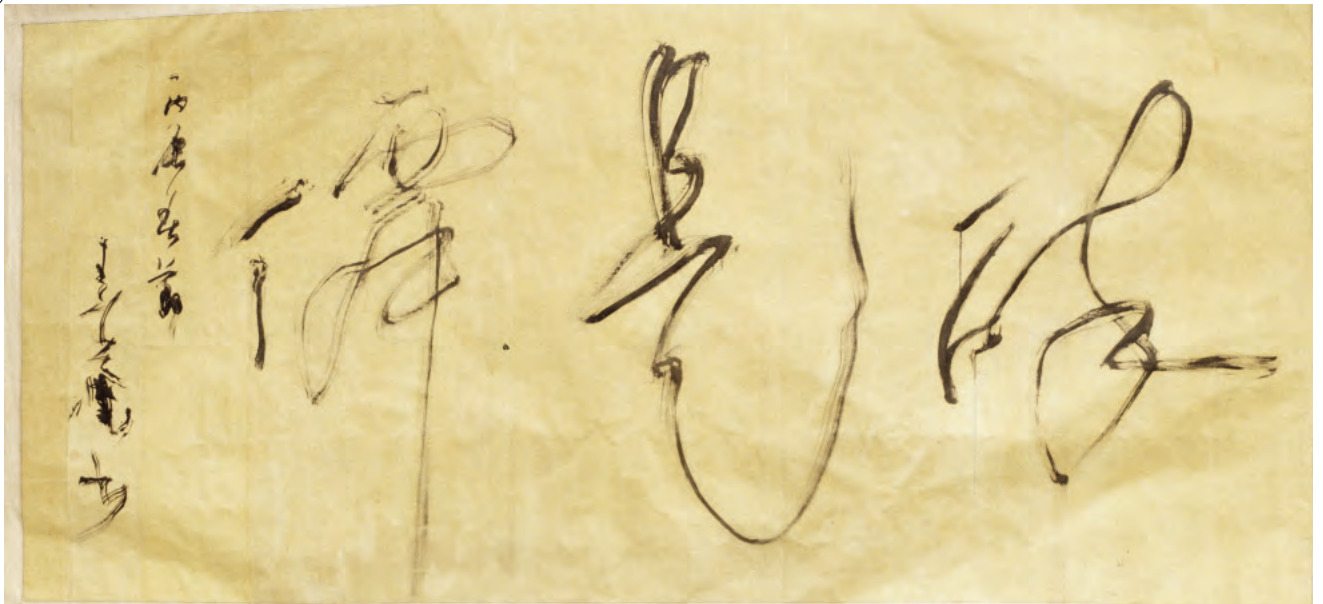






개관연도 1989년  
 대표전화 064-735-1100  
 웹사이트 <http://www.yeomiji.or.kr>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서예가 소암 현중화, 취시선



## 5 소암기념관

SOAM MEMORIAL HALL  
素菴記念館



소암기념관은 제주가 배출한 서예가 소암 현중화 기념관이다. 그는 삶과 예술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며 평생 글씨와 벗하고 살았던 예술가다. 일본 유학을 통해 다양한 서체를 익히고 20세기 핵심 서풍인 육조해를 배운 것이 소암 예술의 성격이나 한국 근현대 서단에서 그의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1세 늦은 나이에 국전에 입선 후 활발한 활동을 하며 다양한 실험과 창작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완성한 소암은 육조해와 행초서의 이질적 요소와 미감을 혼용시킨 독특한 예술세계를 완성시켜 우리나라 서단에 생명력과 다양성을 제공하였다. 소암기념관은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素菴記念館

개관연도	2008년
대표전화	064-760-3511
웹사이트	soam.seogwipo.go.kr
개관시간	09:00~18:00 하절기(7~9월) 09:00~20:00
휴관일	매주 <b>목요일</b> ,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15





## 6 제주테디베어뮤지엄

JEJU TEDDY BEAR MUSEUM  
济州泰迪熊博物馆



꿈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이 함께하는 테디베어 박물관.

2001년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문을 연 제주테디베어뮤지엄은 각국에서 수집한 엔틱 테디베어와 국내외 테디베어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있다. 또 진귀하고 희귀한 테디베어와 대학생들의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자체 디자인한 다양한 테디베어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기념품 가게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있다.





**개관연도** 2001년  
**대표전화** 064-738-7600  
**웹사이트** [www.teddybearmuseum.co.kr](http://www.teddybearmuseum.co.kr)  
**개관시간** 09:00~20:00  
 하절기 09:00~22: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1



## 7 감귤박물관

CITRUS MUSEUM  
橘博物館



청정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을 테마로 한 공립 박물관.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감귤을 통해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보고 감귤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노동현장을 엿볼 수 있다. 각종 감귤테마전시실, 민속유물전시실, 세계감귤전시관, 아열대식물원, 기획전시실과 상시 감귤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겨울 감귤따기 프로그램을 지역 농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과 함께 마음껏 먹고 1봉지(1kg)씩 따서 가져갈 수도 있다.

### 감귤박물관

개관연도	2005년
대표전화	064-767-3010~1, 760-6400~1
웹사이트	<a href="http://www.citrusmuseum.com">www.citrusmuseum.com</a>
개관시간	09:00~18:00 하절기(7~9월) 09:00~19:00
휴관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 8 박물관은 살아있다

ALIVE MUSEUM  
4D爱来魔相艺术馆



테마작시파크로 매일같이 변화하는 박물관, 갈 때마다 변화하는 박물관, 즐거운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다. 작시테마 트리아트를 비롯해 오브제, 스컬처, 프로방스 아트를 보고 듣고 만지며 즐기는 오감만족 체험박물관으로 중문관광단지 입구에 있다. 접근성이 좋으며 새롭고 풍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호기심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







개관연도	2012년
대표전화	064-805-0888
웹사이트	<a href="http://www.alivemuseum.com">www.alivemuseum.com</a>
개관시간	09:00~21:3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





## 9 믿거나말거나박물관 제주

RIPLEY'S BELIEVE IT OR NOT! MUSEUM JEJU  
 信不信由你博物馆 济州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믿거나말거나박물관 제주’는 미국 리플리엔터테인먼트 체인 박물관으로 11번째 유치국이며 32번째 박물관이다. 탐험가 로버트 리플리가 35년간 198개국을 여행하며 수집한 사진, 만화, 공예품 등 흥미있고 놀라운 물건들을 만날 수 있다.

원래 뉴욕의 한 일간지에 스포츠의 진기한 기록들을 소재로 한 만화와 스토리를 연재하던 로버트 리플리는 전 세계를 누비며 수집한 물건들과 지식을 모아 박물관을 지었다. 죽는 날까지 진행했던 그의 TV쇼 마무리 멘트는 “못 믿으시겠지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죠”였다.



## Ripley's **Believe It or Not! Jeju**

개관연도	2010년
대표전화	064-738-3003
웹사이트	<a href="http://www.ripleysjeju.com">www.ripleysjeju.com</a>
개관시간	09:00~20: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2







## 10 세계조가비박물관

WORLD SEASHELL MUSEUM  
世界贝壳博物馆



세계조가비박물관은 서양화가 명연숙 관장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7,800여 종의 희귀 조가비와 산호 그리고 동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조가비아트뮤지엄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패류는 한국패류학회 이준상 박사에 의해 분류 및 등정되었으며, 서양화 작가와 금속조형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천연 조가비와 진짜 진주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 세계조가비박물관

개관연도	2011년
대표전화	064-762-5551
웹사이트	<a href="http://www.wsmuseum.co.kr">www.wsmuseum.co.kr</a>
개관시간	09:00~20: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284









## 11 아프리카박물관

MUSEUM OF AFRICAN ART  
非洲博物館



아프리카박물관은 아프리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문을 연 박물관이다. 건물 외관은 세계 최대 진흙 건축물인 말리공화국의 젠네 대사원(이슬람 사원)을 본따 만들었다.

전시관은 아프리카 유물과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지하공연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프리카 민속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1층에는 아프리카 자연 속 야생동물들을 옮겨 놓은 듯한 사파리 파크, 2층과 3층에는 김중만 작가의 아프리카 풍경 사진작품과 19, 20세기의 다양한 아프리카 가면과 조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개관연도** 1998년  
**대표전화** 064-738-6565  
**웹사이트** [www.africamuseum.or.kr](http://www.africamuseum.or.kr)  
<http://blog.naver.com/africanmuse>  
**개관시간** 09:0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49







## 12 조안베어뮤지엄

JOANNE BEAR MUSEUM  
朝安泰迪熊博物馆



조안베어뮤지엄은 조안 오의 작업실이자 박물관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만 볼 수 있었던 그녀의 작품을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다. 조안 오의 테디베어는 모헤어 실로 원단을 직접 직조하여 천연염료인 쪽, 황연, 소목, 홍화 등으로 염색해서 만든다. 부대시설로 테디베어숍 Life Time Guarantee가 있다.

### JOANNE BEAR MUSEUM

개관연도	2008년
대표전화	064-739-1024
웹사이트	<a href="http://www.joannestudio.co.kr">www.joannestudio.co.kr</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로 113







## 13 석부작박물관

THE NATURAL STONE ART MUSEUM  
石附作博物館



석부작박물관은 제주의 현무암이 주는 신비로움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박물관이다. 거친 현무암에 뿌리 내린 야생초의 아름다움과 질긴 생명력이 제주인의 역사이자 삶과 닮아 있다.

3만여 종의 풍란석부작과 1천여 종의 야생화를 실내전시장과 야외전시장인 ‘마음의 정원’에 태초의 제주 모습으로 재현해 놓았다. 석부작 체험장에서는 직접 석부작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개관연도	2001년
대표전화	064-739-5588
웹사이트	<a href="http://www.seokbujak.com">www.seokbujak.com</a>
개관시간	09:00~17: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 14 SOS 박물관

### SOS MUSEUM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SOS박물관은 신개념 자연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물관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것을 대비해 가상 대응 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3관으로 지진, 산사태, 해일 등에 대한 지식과 예방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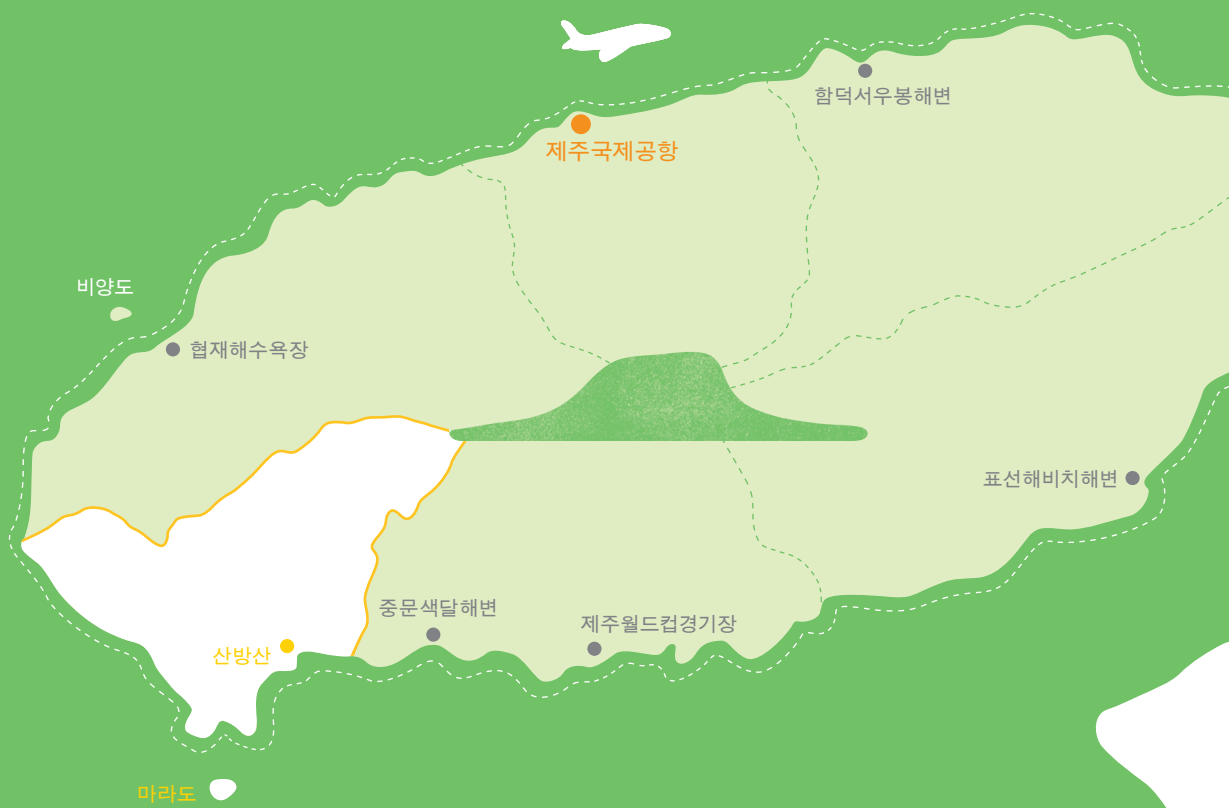
### SOS박물관

개관연도	2012년
대표전화	064-739-7707
웹사이트	<a href="http://seriworld.co.kr">http://seriworld.co.kr</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 서귀포시 서부권

우도  
성산일출봉

- 2 본태박물관
- 3 오설록티뮤지엄
- 7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9 소인국테마파크
- 4 카멜리아힐
- 6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 5 제주유리박물관
- 10 초콜릿박물관
- 1 제주추사관
- 11 제주조각공원
- 8 건강과 성 박물관
- 산방산
- 마라도

## 1 제주추사관

HALL OF CHUSA IN JEJU

济州秋史馆



제주추사관은 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학문,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2010년 5월 건립되었다. 추사기념홀을 비롯해 전시실과 교육실, 수장고 등이 있으며, 부국문화재단과 추사동호회 등에서 기증한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추사 현판 글씨, 추사 편지 글씨, 추사 지인의 편지 글씨 등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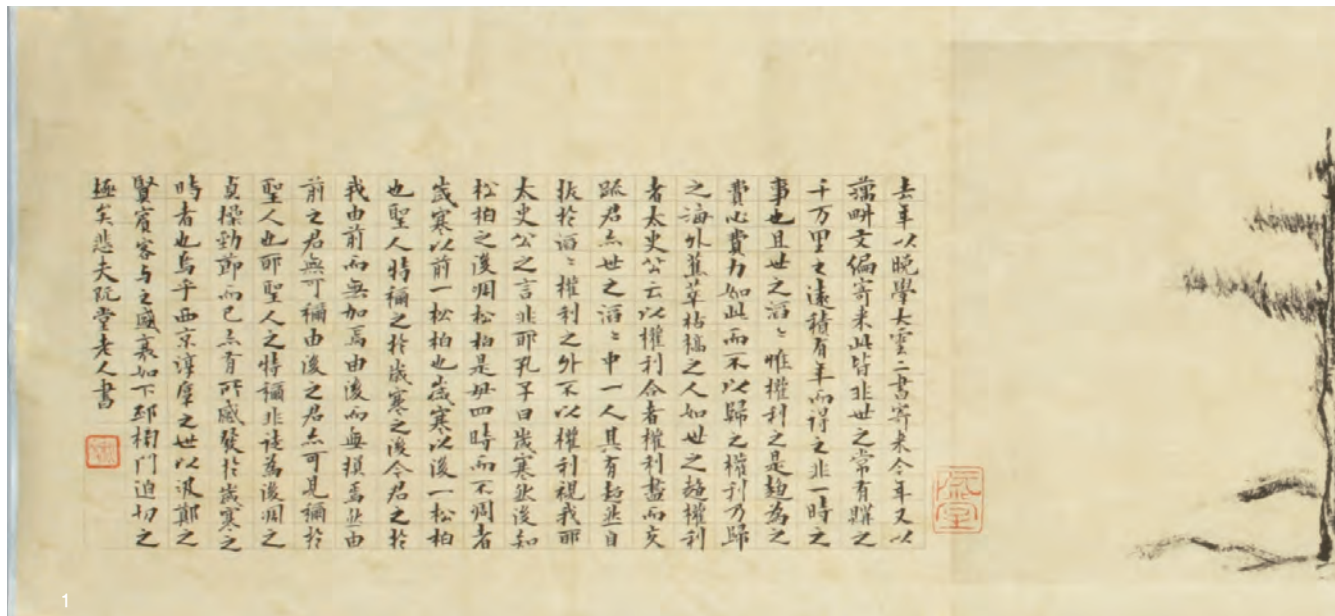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중일 때 제자인 우선 이상적(1804~1865)이 책을 보내 준 데 대한 보답으로 그려 준 ‘세한도’는 당대 최고의 추사 연구자였던 후지츠카 치카시(1879~1948)가 1939년 복제하여 만든 한정본 100점 가운데 한 점이다. 현판 글씨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 시절 대정향교에 써 준 것으로 제주 지역 유생들과 추사와의 교류 흔적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대정향교는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와 2km 정도 떨어진 단산 아래 있다.

추사가 세상과 이별하기 3일 전에 서울 봉은사에 써 준 현판 글씨는 기교 없이 순정한 맛이 풍기는 추사 만년의 대표작이자 최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판전’이라는 글자 옆에 “71세 된 과천 노인이 아픈 가운데 쓰다(七十一果病中作)”라고 쓰여 있어 쓸쓸했던 추사의 말년을 알게 해 준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 생활 중 서울 장동 본가에 보낸 안부 편지는 절해고도에 유배된 추사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또 병치레로 고생하는 아우를 걱정하면서 건강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어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정다감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 1 세한도
- 2 김정희 유배지



## 제주추사관

개관연도	2010년
대표전화	064-760-3406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 추사, 19세기를 이해하는 키워드

추사 김정희는 19세기 조선 학예의 관문이자 19세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다. 추사를 통하지 않고는 19세기 조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리라.

19세기를 특징짓는 연사 중에는 연행(燕行)과 북학(北學)이 있다. 자제군관으로 따라갔던 연행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추사 자신은 물론 조선 학예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계기가 된다. 추사는 그 연행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결정짓는 두 스승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을 만나 학문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그리고 연행 이후에도 계속 교유하면서 청나라의 선진 지식과 문물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데 정열을 쏟았다. 마침내 북학(北學)의 종장(宗匠)이 되어 조선 학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은 추사의 그러한 노력은 죽는 날까지 이어진다.

추사의 대표적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사체’나 ‘세한도’는 북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추사체나 세한도가 단순한 글씨, 그림이 아니라 추사의 학예가 종합된 19세기 조선 문화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추사는 연행을 다녀온 뒤 붓 잡는 법, 먹 사용하는 법, 글씨 감상하는 법 등 글씨 쓰기에 관한 모든 것을 새롭게 익혔다. 당대를 대표하는 왕희지, 구양순, 소동파 등의 글씨에 서부터 옹방강의 글씨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모든 서법을 완전히 흡수하여 스스로 변화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 추사체다.

세한도는 1844년 제주에 유배 중이던 추사가 청나라 서적 등을 잊지 않고 보내 준 제자 이상적(李尙迪)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그려준 것이다. 세한도의 원형은 송나라 대문인 소동파의 거울 소나무 그림 ‘언송도’라고 한다. 1809년 연행 때 옹방강의 서재에서 본



‘언송도’ 관련 시가 창작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다. 추사는 옹방강을 만난 지 33년이 지나 세한도를 그렸는데, 그러기까지 쌓아 온 학문과 예술의 모든 것을 그림에 쏟아 넣었다. 19세기 조선 문화의 정수가 ‘세한도’에 녹아 있는 셈이다.

세한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그림이기 이전에 19세기 조선 학술과 문화의 결정체다. 추사가 세한도를 완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외래문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다. 외래문화의 수용을 통해 새롭게 창조한 우리 문화가 그 보편적 가치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추사가 19세기 조선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 데는 스스로의 역량과 함께 신흥지식인으로 성장한 역관(譯官)과 여항인(閩巷人, 중인 출신의 문예인)들과의 막역한 관계도 크게 작용했다. 추사는 역관과 여항 지식인들의 스승이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고, 그들의 도움으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면서 19세기 조선의 문화를 이끌 수 있었다.

추사의 학문은 서화, 금석학, 시론, 감상학, 경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 분야에서 시대의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다. 추사가 국내 학문을 섭렵하고 청나라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독창적인 자기 세계, 조선의 문화를 창조한 결과이다.

추사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천재가 아니다. ‘추사’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 투영된 수많은 영향력의 정체를 밝히는 데도 눈을 돌려야 한다.

19세기 조선의 학문과 예술의 정수라는 ‘세한도’의 오른쪽 한권에 희미한 붉은 낙관이 있다. 장무상망(長毋相忘).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이다. 이는 추사가 후세에 전하는 경구가 아닐까. (박상철의 『세한도』 참고)

서용순 수필가





## 2 본태박물관

BONTE MUSEUM  
本态博物馆



‘本態, 본래의 형태’라는 뜻으로 ‘인류 본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한다’는 목표로 문을 연 본태박물관은 한국 전통공예의 미래가치를 탐색하고 현대와 소통하여 전통문화를 세계인들과 나누고자 한다. 개관전으로 설립자의 수집품인 전통공예작품과 예술작품들로 첫선을 보인 이래 제1박물관은 전통 공예전시실로, 제2박물관은 백남준을 비롯한 세계적인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제3박물관은 세계적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인 「무한 거울의 방-영혼의 반짝임」(2008)이 영구 설치되어 있으며, 본태 개념의 다양한 작품들을 기획전시하고 있다.

부대시설로 카페 본태와 본태뮤직홀, 아트숍인 본태숍이 있다.

건물은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제주도 대지에 순응하는 전통과 현대’라는 설계 의도로 지었으며,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노출 콘크리트에 자연의 숨결과 따뜻한 색감을 지닌 담백한 목조건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주변에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한라산 돈내코 코스와 상효원 수목원이 있다.





- 1 쿠사마 야요이, 무한 거울의 방-영혼의 반짝임
- 2 꽃상여와 꼭두의 미학
- 3 David Nash





개관연도	2012년
대표전화	064-792-8108
웹사이트	<a href="http://www.bontemuseum.com">www.bontemuseum.com</a>
개관시간	10: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69





### 3 오설록티뮤지엄

O'SULLOC TEA MUSEUM

哦雪绿茶博物馆



오설록티뮤지엄은 (주)아모레 퍼시픽이 녹차와 한국전통차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개관한 차 박물관이다. 제주는 추사 김정희가 유배 시절 차를 키우고 초의선사 등 많은 다인들과 차를 통해 교류하며 다선삼매의 경지에 이르러 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유서 깊은 차 유적지다. 적당한 기후와 깨끗한 환경도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제주 오설록 서광다원 입구에 있는 오설록티뮤지엄은 동서양 및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공간이자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이다. 오설록의 의미는 ‘눈덮인 한라산 다원에서 생산된 깨끗한 녹차’라는 의미를 담은 한자어다.

건물 외부 전시관 주변에 널리 펼쳐진 녹차밭과 한라산, 산방산 등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있으며, 뮤지엄 시설로 차문화실과 티하우스, 티숍, 덩음차관이 있어 즉석에서 시연을 하기도 한다. 세계의 찻잔 전시실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차와 역사의 가치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찻잔들이 전시되어 있다.















## 오설록

개관연도	2001년
대표전화	064-794-5312~3
웹사이트	<a href="http://www.osulloc.com">www.osulloc.com</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5



## 4 카멜리아힐

CAMELLIA HILL  
山茶花庭院



카멜리아힐은 가을부터 봄까지 차례로 피는 80여 개국의 동백나무 500여 품종 6,0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동백 수목원이다. 동백은 향기가 없는 꽃이 대부분이나 카멜리아힐은 향기 나는 동백 8종 중 6종을 보유하고 있어 달콤하고 매혹적인 동백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제주 자생식물 250종을 비롯해 모양과 색깔, 향기가 각기 다른 다양한 꽃들이 동백과 어우러져 계절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는 카멜리아힐은 특히 겨울이 가장 아름답다. 추위가 깊어질수록 하얗고 붉은 아시아와 유럽 동백꽃 수십여 종이 만발하여 우아하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동백숲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동박새 울음소리와 제주 중산간의 바람소리는 영혼을 위로하는 휴식의 시간을 선사한다.





개관연도	2008년
대표전화	064-792-0088
웹사이트	<a href="http://www.camelliahill.co.kr">www.camelliahill.co.kr</a>
개관시간	하절기(6~8월) 08:30~19:00 간절기(3~5,9~11월) 08:30~18:30 동절기(12,1,2월) 08:3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 5 제주유리박물관

JEJU GLASS MUSEUM  
濟州琉璃博物館



유리예술가들이 설계하고 만든 제주유리박물관에는 투명한 아름다움과 환상적인 유리의 세계가 펼쳐진다. 유리테이블은 물론 실내장식 하나하나 유리예술작품으로 꾸며져 있는 ‘카페 그라스 가든’에서는 뜻밖의 감동과 추억을 느낄 수 있다. 직접 유리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공간도 있다.





**개관연도** 2008년  
**대표전화** 064-792-6262~3  
**웹사이트** [www.glassmuseum.co.kr](http://www.glassmuseum.co.kr)  
**개관시간** 하절기(5~10월) 09:00~22:00  
 동절기(11~4월) 09:00~21: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 6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WORLD AUTOMOBILE JEJU MUSEUM  
世界自動車濟州博物館



지금 지구상에는 10억 대가 넘는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매년 8,000만 대가 생산된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자 꿈과 미래다.

세계자동차박물관은 아시아 최초 개인소장 자동차 박물관으로 마라도가 눈앞에 펼쳐진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본관에 들어서면 세계의 명차 ‘Benz 300SL’, ‘Patent’, ‘Bayard’의 아름다운 위용을 감상할 수 있다.

제1전시관부터 제4전시관까지 190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 한 세기를 품미한 최고의 명차로 손꼽히는 벤츠, 벤틀리, 롤스로이스,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희귀 명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부대시설로 어린이 교통체험장과 꽃자왈 산책길이 있는 힐링로드가 있다.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WORLD AUTOMOBILE JEJU MUSEUM

개관연도	2008년
대표전화	064-792-3000
웹사이트	<a href="http://www.koreaautomuseum.com">www.koreaautomuseum.com</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 7 제주항공우주박물관

JEJU AEROSPACE MUSEUM

濟州航空宇宙博物館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테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다. 인류의 꿈이 실현되기까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펼쳐놓은 항공역사관, 천문우주관, 테마관,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다양한 항공기의 구조와 발전과정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이다. 전시관 내부에는 한국전쟁 때 투입되었던 비행기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 하늘을 지켰던 펜텀전투기 등 20여 대와 다양한 실제 항공기들을 볼 수 있는 항공기 부양전시장 에어홀, 세계 항공기의 역사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호 등 항공 역사의 주요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을 살펴볼 수 있다.

천문우주관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탐험 역사와 천문학, 태양계의 구조 등 은하계에 관한 전시관으로 다양한 로켓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공군갤러리 존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와 창공을 넘어 '항공 우주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공군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살펴보는 공간이다.



테마관은 최첨단 영상체험시설로 5D 서클비전, 3D 시뮬레이터, 인터랙티브월, 5D 영상관 등 최첨단 항공우주과학기술 체험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상상속의 체험공간이다. 부대시설로 높이 40m에 설치된 360도 개방형 전망대와 300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대강당, 푸드코트, 항공기 모형 디자인상품 등으로 꾸며진 아트숍, 활주로를 모티브로 한 야외 항공기전시장, 잔디광장 등이 있다.







**개관연도** 2014년  
**대표전화** 064-800-2114  
**웹사이트** [www.jdc-jam.com](http://www.jdc-jam.com)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 8 건강과 성 박물관

THE MUSEUM OF SEX & HEALTH IN JEJU  
健康与性博物馆



서귀포 산방산과 중문관광단지 사이에 있는 실내 전시공간과 야외조각공원이 합쳐진 성을 테마로 한 박물관. 어둡고 숨기는 것에 익숙한 성을 밝고 건강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관은 성교육관, 인류의 성과 관련한 성 문화관, 해학적 요소가 담긴 판타지관과 인간이 만들어 낸 육체의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트작품을 모아 놓은 갤러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과 성 박물관

개관연도	2006년
대표전화	064-792-5700
웹사이트	<a href="http://www.sexmuseum.or.kr">www.sexmuseum.or.kr</a>
개관시간	09:00~20:00 하절기(7~8월) 09:00~22: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611





## 9 소인국테마파크

SOINGOOK THEME PARK  
小人国主题公园



소인국테마파크는 세계의 건축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세계 30여 개국의 유명 건축물 미니어처가 전시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물들을 엄선하여 불국사, 제주국제공항, 자금성, 타워브리지, 에펠탑 등 100여 점의 미니어처와 제주도의 돌문화, 공룡화석, 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식뷔페식당 ‘트레비분수’는 동시에 1천여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개관연도 2002년  
 대표전화 064-794-5400  
 웹사이트 [www.soingook.com](http://www.soingook.com)  
 개관시간 하절기 08:30~19:30  
 동절기 08:30~17:3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78



## 10 초콜릿박물관

CHOCOLATE MUSEUM  
巧克力博物馆



독일 쾰른의 초콜릿박물관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로 세워진 초콜릿&카카오 전문 박물관. 초콜릿의 전래 역사와 지구상의 모든 초콜릿에 대하여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초콜릿역사관, 카카오룸, 영상실, 크리스마스룸 등 다양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초콜릿 제조과정도 직접 볼 수 있으며 생산실에서 바로 만든 신선한 수제 초콜릿을 구입할 수 있다.





**개관연도** 2002년  
**대표전화** 064-792-3121  
**웹사이트** [www.chocolatemuseum.org](http://www.chocolatemuseum.org)  
**개관시간** 3~6월 | 10:00~18:00, 7~8월 | 10:00~19:00  
 9~10월 | 10:00~18:00, 11~2월 | 10:00~17: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3000번길 144



## 11 제주조각공원

JEJU SCULPTURE PARK  
濟州彫刻公園



제주조각공원은 신비의 섬 제주의 자연과 현대예술을 잇는 종합문화 예술공원이다. 서귀포시 산방산 뒤 야산 분지에 자리잡은 조각공원은 한국의 중추적 조각작가들의 작품 16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미술공방과 공연장도 있다. 공원 안에 꽃자왈 산책로가 여러 갈래 있으며, 주변에 산방산과 안덕계곡, 화순 해수욕장과 하멜기념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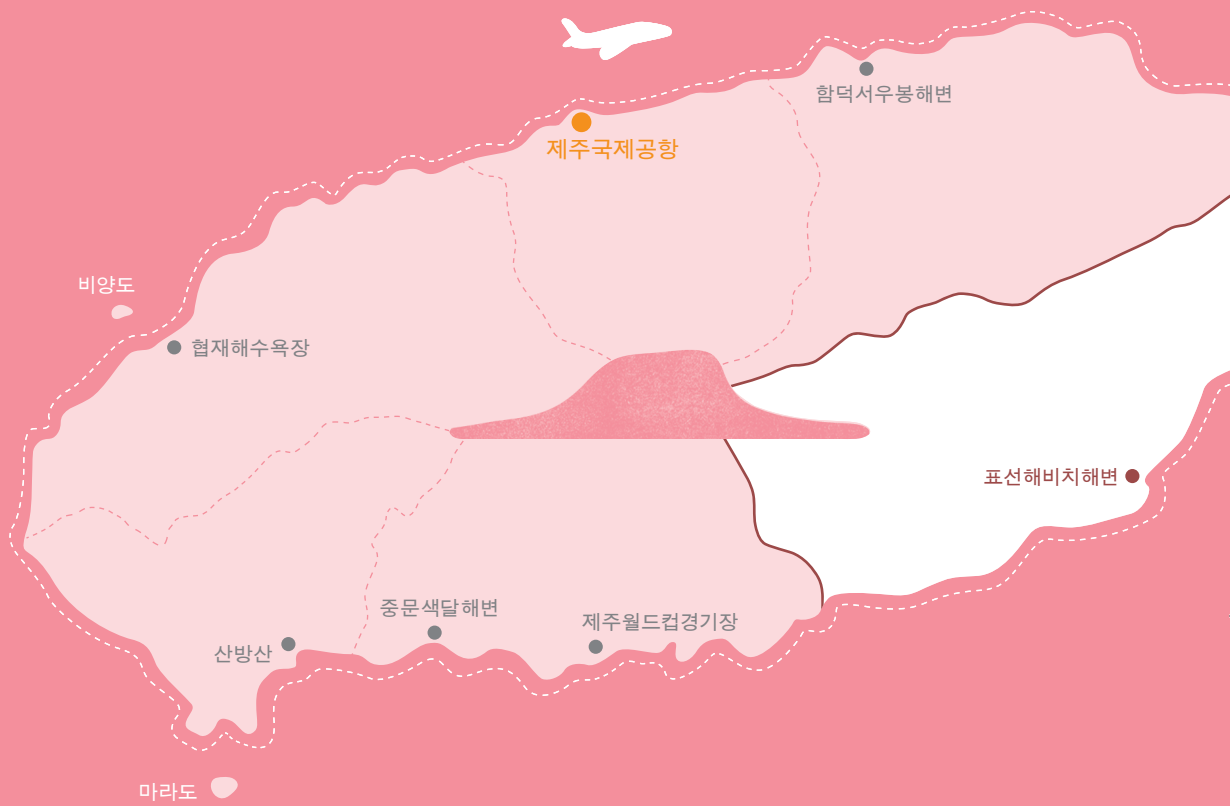
### 제주조각공원

개관연도	1987년
대표전화	064-794-9680
개관시간	09:00~17: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









# 서귀포시 동부권





## 1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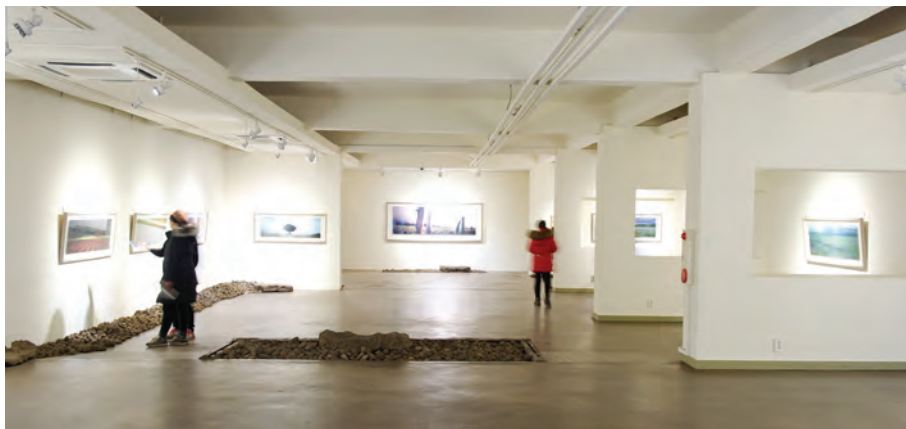
KIMYOUNGGAP GALLERY DUMOAK  
金永甲頭毛岳畫廊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은 폐교된 삼달분교를 개조하여 문을 열었다. 두모악은 ‘한라산’의 옛 이름으로 20여 년간 제주도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 낸 김영갑 사진작가가 2005년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생전의 작품과 유품들을 모아놓은 전시관이다.

전시장은 두모악관, 하늘오름관과 유품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전시장은 작가가 투병생활 중에도 손수 일구었던 정원으로 휴식과 명상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개관연도** 2002년  
**대표전화** 064-784-9907  
**웹사이트** [www.dumoak.com](http://www.dumoak.com)  
**개관시간** 간절기(3~6, 9~10월) 09:30~18:00  
 하절기(7~8월) 09:30~19:00  
 동절기(11~2월) 09:30~17:00  
**휴관일** 매주 **수요일**, 설·추석 당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photo by KIM YOUNGGAP

## 김영갑, 지독한 제주 사랑

“어머니의 젓가슴 같은 오름과 소리쳐 올 때가 더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처음 만나곤 열병을 앓았다. 지독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소름끼치는 그리움 때문에 셋 살림하듯 오가는 것으로는 갈증만 더할 뿐이어서 서울살이를 접고 아예 제주에 등지를 틀었다.”<sup>1)</sup>

1982년부터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사진작업을 하던 작가는 1985년 제주에 정착하였다. 제주의 바닷가와 중산간, 한라산과 마라도, 오름과 바다, 들판과 구름, 노인과 해녀, 바람과 역새 등 섬의 모든 것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는 지독히도 제주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밥먹을 돈을 아껴 필름을 사고 배가 고프면 들판의 당근이나 고구마로 허기를 달랬다. 섬의 외로움과 평화를 찍는 그의 사진작업은 수행과도 같이 영혼과 열정을 모두 바친 결과물이다. 그런 그에게 2001년 어느 날 루게릭병이라는 불치의 병이 찾아올 때까지 작업에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사랑과 열정으로 살았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는 잠깐 두려움에 놀리기도 하였으나 치료약이 없고 원인도 모르는 불치병이라는 루게릭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2002년 여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을 손수 만들어 개관할 때 그는 많이 여위어 갔고 제주의 바닷빛만큼이나 깊어진 그의 영혼은 밤새워 별을 쳐다보는 날이 많았다. 투병생활을 한 지 6년 만인 2005년 5월 그는 손수 만든 갤러리 두모악에서 고이 잠들었고 그의 뼈는 갤러리 마당에 뿌려졌다. 그가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혼이 깃든 두모악을 찾는다. 현재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은 그의 제자 박훈일이 지키고 있으며, 작가의 개인사보다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박훈일 관장은 김영갑의 10주기를 맞아 서울과 제주에서 전시를 연다.

1) 김영갑, 『김영갑 1957-2005』, 다빈치, 2006

글정리 Helen Y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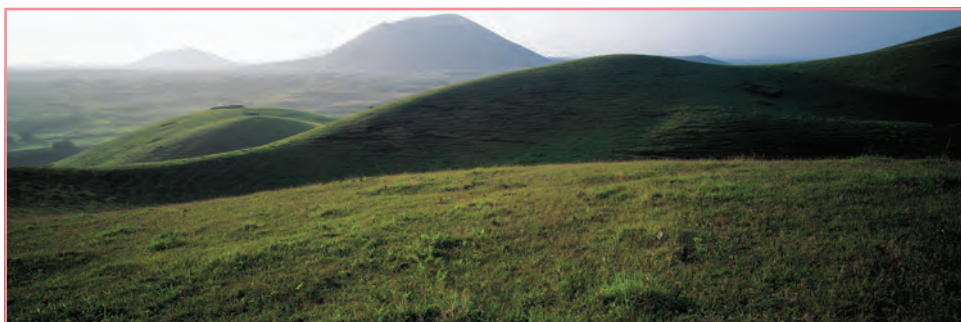


photo by KIM YOUNGGAP

## 2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PHOTO GALLERY IMAGES OF NATURE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은 지역 언론사에서 30여 년간 사진기자로 일해 온 서재철이 찍은 제주 한라산의 사계절과 신비로운 제주의 자연, 제주 사람들의 삶의 현장인 포구, 해녀, 오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은 2004년 표선면 가시리 폐교로 있던 가시초등학교 자리로 이전 개관하였으며 주로 사진작품을 전시한다.

4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장 중에 특별히 제4전시장 화산탄 갤러리에는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섬 제주의 형성과 연관된 희귀 화산탄이 전시되어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체험을 위한 ‘자연과 사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연도	1998년
대표전화	064-787-3110
웹사이트	<a href="http://www.hallaphoto.com">www.hallaphoto.com</a>
개관시간	하절기 10:00~18:00 동절기 10:00~17: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613-46





서재철, 월정리 겨울 소나무





### 3 신영영화박물관

SINYOUNG CINEMA MUSEUM  
申榮映畫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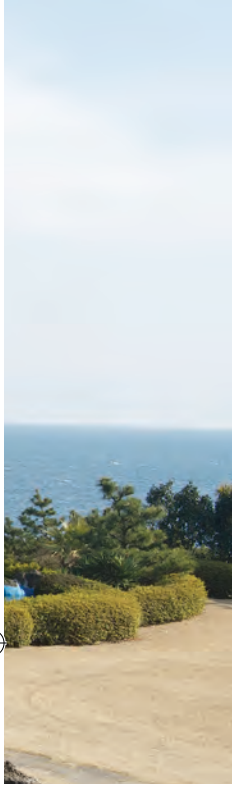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박물관이다. 서귀포 표선리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곳에 영화 '쥬라기공원'을 옮겨 놓은 듯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다. 영화인 개인이 만든 뮤지엄이지만 그의 영화에 대한 애정과 영화인들을 위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곳이다.

영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영화감독 그리고 영화배우들을 위한 헌정 장소이기도 한 박물관은 옛날 영화에서부터 최근 영화까지 영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놓았다. 카메라 조리개 모양으로 디자인된 전시관 입구로 들어서면 김석 작가가 만든 멋진 조형물 로보트 태권V가 방문객들을 반긴다.

전시관 내부는 영화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뮤지엄으로 리뉴얼하였다.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리고자 한다는 설립자의 의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무비스타는 각종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공간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이 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는 영화에 대한 이해와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공간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영화를 알리고 한류스타들의 업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MOVIE  
STAR**  
ShinYoung Cinema Museum

개관연도 1999년  
대표전화 064-805-0008  
웹사이트 [www.moviestarjeju.kr](http://www.moviestarjeju.kr)  
개관시간 10:00~18:00  
하절기(7.20~8.20) 10:0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35







#### 4 일출랜드

ILCHULLAND  
日出园地




일출랜드는 여행객들에게 많은 곳을 가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조금  
함을 버리고 천천히 산책길을 따라 걸으라고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아  
열대식물 산책로가 심신을 여유롭게 해 주는 식물원이다.

천연용암동굴인 미천굴을 중심으로 민속촌, 수변공원, 선인장온실, 아열대정원,  
제주야생화 현무암 분재정원, 제주 조각의 거리, 잔디광장과 산책로, 아트센터  
등이 있다. 아트센터에서는 도자기, 첼보, 에코백,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등의 체  
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출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개관연도	2002년
대표전화	064-784-2080
웹사이트	<a href="http://www.ilchulland.com">www.ilchulland.com</a>
개관시간	08:30~일몰 시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 5 제주민속촌

JEJU FOLK VILLAGE  
济州民俗村



제주민속촌은 1890년대를 기준 연대로 삼아 제주도 전래 민속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100여 채에 달하는 전통가옥은 실제로 제주도민이 생활하던 집을 그대로 옮겨 와 완벽하게 복원해 놓았다. 제주도의 옛 마을을 산촌, 중산간촌, 어촌을 비롯하여 무속신앙촌, 제주 관아 등으로 재현해 놓은 옛 제주의 모습과 전통가옥에는 생활용품, 농기구, 어구, 가구, 식물 등 8천여 점의 민속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 제주민속촌

개관연도	1987년
대표전화	064-787-4501
웹사이트	<a href="http://www.jejufolk.com">www.jejufolk.com</a>
개관시간	하절기(4~7.15일), 9월 08:30~18:00 성수기(7.16일~8월) 08:30~18:30 동절기(10~2월) 08:30~17:00, 3월 08:30~17:3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 6 제주해양과학관

AQUA PLANET JEJU  
韩华 AQUA PLANET 济州



섬지코지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규모가 큰 해양테마파크다. 제주의 정신을 담은 ‘제주 해녀 물질공연’과 아시아 최대의 수조 용적량을 자랑하는 아쿠아리움에서는 체험 다이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인 수조에 들어가 바닷속을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산소통과 마스크 등 전문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강사에게 안전교육을 받고 입수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해양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며, 해양생물 보존과 번식을 위한 해양생물연구센터, 서식지의 보존기관이자 해양동물 전문구조 치료기관인 메디컬센터가 있다.

서귀포 성산읍 쪽빛 바다와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는 신양해수욕장과 접해 있어 여름이면 재즈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전국원드서핑선수권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 제주해양과학관

개관연도	2012년
대표전화	064-780-0900
웹사이트	<a href="http://www.aquaplanet.co.kr/jeju">www.aquaplanet.co.kr/jeju</a>
개관시간	10:0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 7 트릭아트뮤지엄

TRICK ART MUSEUM KOREA



트릭아트는 입체화법과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평면 그림이 입체로 느껴지도록 제작된 착시 미술이다. 20년 전 일본에서 창시된 후 현재 20여 개의 트릭아트뮤지엄이 운영될 정도로 인기 있는 미술장르다.

고흐의 자화상,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레의 만종 등 명화 속의 주인공들이 액자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착시를 경험할 수 있는 트릭아트뮤지엄은 입체적인 미술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명화작품들을 자연스레 기억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이다. 주변에 성산일출봉과 일출랜드, 성읍민속마을이 있다.





**개관연도** 2009년  
**대표전화** 064-805-0800  
**웹사이트** <http://alivemuseum.com/seongeup>  
**개관시간** 09:00~19: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변영로 2644









## 8 휴애리자연생활공원

HUEREE  
休愛里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은 ‘제주 속의 작은 제주’라는 표현에 걸맞게 가장 제주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향토공원이다. 전통놀이 체험과 곤충 테마관, 동물 먹이주기 체험, 감귤이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과정과 제주 조랑말을 안전하게 타볼 수 있는 승마체험장이 있다.



개관연도	2007년
대표전화	064-732-2114
웹사이트	www.hueree.co.kr
개관시간	09:00~18:00 하절기(6~8월) 09:00~17:30 동절기(11~3월) 09:00~16:3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 9 제주허브동산

JEJU HERB DONGSAN



제주허브동산은 150여 종의 허브와 야생화를 잘 가꾸어 놓은 정원과 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감귤농장과 허브카페, 허브정원 사이에 자리 잡은 숙소, 아로마 족욕, 아로마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는 찜질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연도	2005년
대표전화	064-787-7362~3
웹사이트	<a href="http://www.herbdongsan.com">www.herbdongsan.com</a>
개관시간	08:00~일몰 시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 170





## 10 비엘바이크박물관

WORLD BIKE MUSEUM



비엘바이크박물관은 바이크를 테마로 한 놀이터식 신개념 가족 박물관이다. 비엘오감(교육, 체험, 휴식, 먹거리, 스타일)이라는 전략적 콘셉트를 잘 조화시킨 스타일테이너 파크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전시된 바이크들은 실제 가동할 수 있는 1930~2000년대 제품들로, 남자들의 로망인 멋진 Old&New 바이크가 있고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영화포스터 포토존이 있다. 부대시설로 체험장과 어린이 전동바이크 교통문화체험장 등이 있다.





## 비엘바이크박물관

개관연도	2010년
대표전화	064-787-7667
웹사이트	<a href="http://www.bikemuseum.co.kr">www.bikemuseum.co.kr</a>
개관시간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474



## 제주의 대표적 축제

### 탐라국 입춘굿

한 해를 여는 입춘을 맞이하여 겨울을 내몰고 제주 땅에 풍요를 불러오기 위해 1만 8천 신을 대접하여 액운을 떨쳐내고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 1914년 일제 시대 이후 축제로서의 전승이 끊기기도 했지만 1999년 탐라국 입춘굿놀이로 복원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시** 매년 2월 초순  
**장소** 제주목관아 및 원도심 일원  
**안내** 제주시 문화예술과  
064-728-2714



### 제주들불축제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목지 들판에 불을 놓던 '방애'라는 제주의 옛 목축문화를 재현하는 들불 축제행사이다.

**일시** 매년 3월 초순  
**장소**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안내** 제주시 관광진흥과  
064-728-2751



### 제주국제관악제

매년 8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관악의 선율을 느껴볼 수 있는 축제. 세계의 여러 재능 있는 관악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타악기 콩쿠르도 함께 진행된다.

**일시** 매년 8월 중  
**장소** 웹사이트 공지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64-710-3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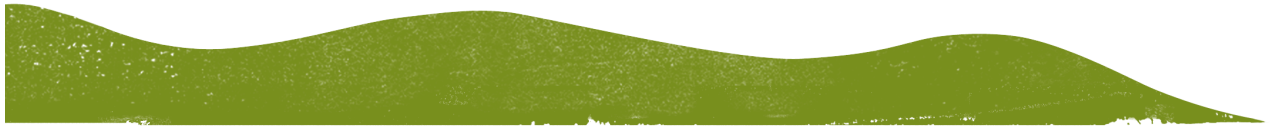


### 탐라문화제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비롯해 잘 보전, 전승되어 온 탐라문화유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매년 10월 중  
**장소** 제주시 탐동광장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64-710-3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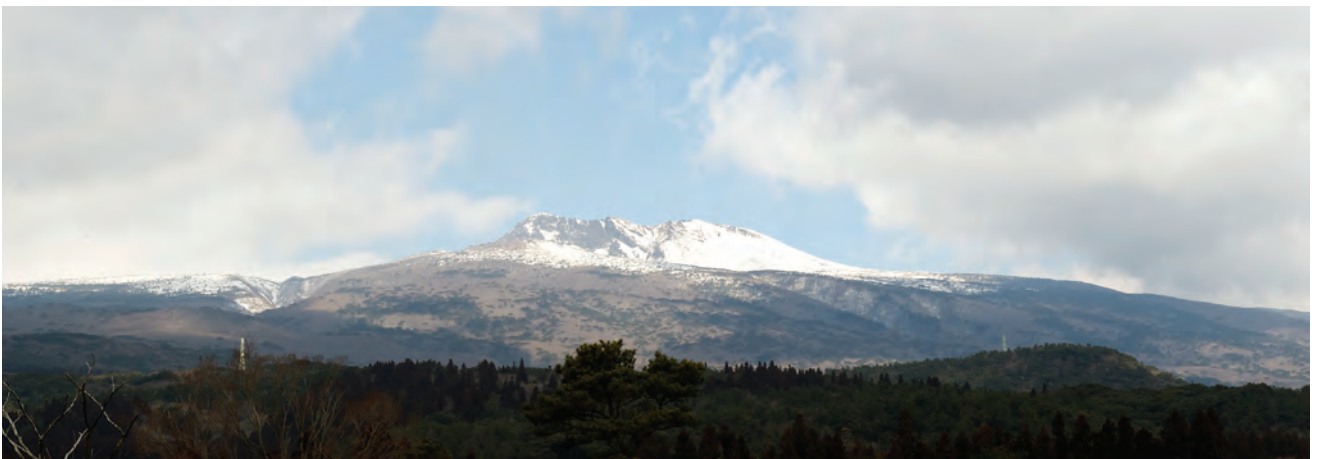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

영산(靈山)으로 불리는 한라산은 설문대할망 전설과 함께 언제나 신비로운 자태로 제주를 다시 찾게 합니다.

제주도를 찾아가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본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북 제작은 해당 기관의 협조와 여러 차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정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음을 느낍니다. 모든 대상 기관의 현지 조사를 통하여 체험적 소개 형식으로 꾸몄으며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휴업한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제주의 지역 특성을 나누어 소개하고 QR코드로 해당 문화시설의 정보를 상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우선으로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자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주는 아름답다

## Beautiful Jeju Island



© 2015 제주특별자치도  
ISBN 979-11-5555-033-5 03980

펴낸날 2015년 6월  
펴낸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펴낸곳 이지출판사 / 대표 서용순  
출판등록 1997년 9월 10일 제300-2005-156호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903호  
대표전화 02-743-7661, fax 02-743-7621  
이메일 easy7661@naver.com

기획 Blue Donkey   
글 서용순, 우종영, Helen Yoo, 홍재승, 전은자  
사진 Felix Park  
일러스트 레지나  
영역 함규연  
디자인 박수진, 신애현  
자료정리 민들레  
현지답사 Felix Park, 레지나, 우종영, Helen Yoo, 천병태

본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제작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나 복사,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16502)」